

## 雲門僧伽大學

714-883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번지 雲門寺 편집부 (054) 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E-mail : unmoon@chollian.net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여름호 · 통권 제 101호 · 2007년 7월 15일 발행 · 등록 1995년 3월 29일 · 등록번호 경북 바-01008  
발행처 · 운문승가대학 / 발행인 · 평성(전임호) / 고문 · 일진 / 편집 · 운문승가대학 문화부  
편집장 · 강석 / 편집위원 · 원재, 정인, 영재, 여균, 범수, 도혜, 여진, 도일, 현산, 아현 / 사진 · 우연  
컴퓨터 · 유덕 / 편집디자인 · 호 미디어 (02)2285-3366



운문승가대학  
2007년 여름호 통권 제 101호

# 雲門





불가 2551년 여름호 통권 제101호

# 雲門

## 목차

|           |    |
|-----------|----|
| 호거산 운문사   | 2  |
| 죽림헌       | 3  |
| 교수논단      | 4  |
| 차례법문      | 6  |
| 학인논단      | 12 |
| 이 한권의 책   | 14 |
| 특별기고 I    | 18 |
| 노스님 탐방    | 20 |
| 想         | 24 |
| 신사이야기     | 26 |
| 특별기고 II   | 28 |
| 답소        | 30 |
| 끝없는 여정    | 32 |
| 특별기획      | 34 |
| 생활 속의 진언  | 38 |
| 수행의 두레박 I | 41 |
| II        | 42 |
| 편지글       | 44 |
| 운문논평      | 46 |
| 운문소식      | 48 |
| 등불        | 50 |
|           | 51 |



바닷가에서  
에세이  
파도를 보아라  
아래로 내려오는 물결이  
하나되어가듯  
차오르는 수평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얻는 평안이 거기 있다  
호정 이명옥 시

사슴길에  
눈코가 파르러  
바닷가  
하양계부서지는





## 천 개의 바람

명 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若以色見我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以音声求我 소리로 나를 구한다면  
是人行邪道 이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므로  
不能見如來 여래를 볼 수 없으리라.

이 계송은 불자라면 누구나 잘 아는 금강경 계송입니다. 그러나 알려진 만큼 그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 거룩한 법당에서 정성껏 예불을 올리는 것도 훌륭한 불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경전을 읽고 이해하고 그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우리 스님들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행을 할 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착하여 그것만 수행이라고 여긴다면 금강경의 말씀처럼 올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올바른 수행은 하늘을 나는 새가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행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상 속에 담길 수 있는 마음은 제한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은 허공과 같이 제한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순수한 마음이 형상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형상 속에서도 형상 밖에서도 순수한 본래의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번뇌도 부처님 마음이며 수행도 부처님 마음입니다.

보통 우리는 금강경의 계송을 외적인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러한 생각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에 대한 고집도 버려야 하지만 非法에 대한 고집도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법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생각마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강경의 계송은 본래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학인 여러분, 수행의 근본을 잘 살피서 여래의 바른 길을 가는 수행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무명 시인의 시를 덧붙입니다.

### 천 개의 바람

내 무덤에 와 눈물 흘리지 마요,  
나는 거기 없소. 그곳에 잠들지 않소.  
나는 이리저리 불어대는 바람이요,  
나는 눈발에 보석처럼 반짝이는 빛이요,  
나는 익은 곡식에 내리쬐는 햇살이요.

나는 부드럽게 내리는 가을비라요,  
나는 그대가 고요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퍼드덕 날아올라 둥글게 무리 짓는 새들이요,  
나는 밤을 비추는 아련한 별들이요.

내 무덤에 와 울지 마요,  
나는 거기 없소. 나는 죽지 않았소. 卽



## 본공당(本空堂) 계명(戒明)선사의 삶과 수행

진 광 / 문문승가대학 강사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본공선사의 생애
3. 본공선사의 수행생활
  - 1) 만공선사를 친견하다
  - 2) 수선안거의 수행생활
4. 수행의 특징
  - 1) 철저한 신심
  - 2) 참선과 기도의 일치
5. 나가는 말

### 3. 본공 선사의 수행생활

#### 2) 수선안거의 수행생활

그 후 본공 스님은 31세 때 만공 스님의 권유로 오대산 상원사 한암 스님을 찾아뵈었다. 당시 상원사 선원은 上선원, 中선원, 下선원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비구니스님들도 수행하였다고 한다.<sup>13)</sup> 본공 스님은 한암 스님의 지도 아래 월정사 지장

암<sup>14)</sup>에 비구니선원을 처음 개설(1937년)하였다. 남대 지장암을 비구니선원으로 개설함에 따라 지장암은 북방 최초의 비구니선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스님은 그 후 수년간 지장암에서 수행정진하였다. 1943년에는 만공 스님이 오대산 지장암 선원으로 오셔서 비구니수좌들에게 참선 지도를 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지장암 기린선원<sup>15)</sup>의 청규를 살펴보면 안거기간 동안의 수선납자들의 수행의 면모를 가늠할 수 있다.

#### 「기린선원의 청규」

- ① 지대방에서는 묵언한다.
- ② 반살림 등산과 자유정진을 하지 않는다.
- ③ 개인적 포행은 지장암 입구 다리와 선원 산쪽 텃밭 중부리 개울을 넘지 못한다.
- ④ 안거 중에 사무실, 월정사 및 산내 암자를 출입하지 못한다.
- ⑤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을 보지 못한다.
- ⑥ 안거 중 정진 시간은 오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 ⑦ 입방자는 구족계 수지자로 3안거 이상 성만한 자라야 한다.
- ⑧ 정하지 아니한 규범은 선원규범 교본에 의한다.
- ⑨ 안거 중 청규를 위반한 자는 자진 퇴방한다.

본공 스님 수행의 진면목이 드러나던 시기는 전국 각지의 선원을 돌며 정진한 20여 년간이라 할 수 있다. 스님은 나이 30세 때인 1936년부터 59세가 되는 1965년까지 20여 년간 제방의 선원에서 수행정진을 하셨다.

다음은 본공 스님 37세(1943년) 때 만공 선사께서 보내신 한글편지이다.

계명이 보아라

계명 여섯 장을 써서 용음<sup>16)</sup>에게 주었더니 그간 받아 보았겠지. 꿈같이 다녀 온 후 월여(月餘)되도록 일자 서신 못할 뿐 너의 편지 답장도 지금껏 못한 일 오직 무심(無心)이라 하였으라. 돌아다니며 더위 먹은 것이 집에 들어와 재발(再發)되어 붓대 잡을 용기가 없어 이제야 두어 자 부치니 인사 아니로다. 그간 도력이 날로 증장(增長)하며 대중도 정진 잘하여 해제 잘 마치고있겠지. 이곳은 해제 잘하고 해제 법문 한 귀 적어 보내니 잘 살펴보아라. 불타에서 설하시되 “유정무정(有情無情)이 실개성불(悉皆成佛)이라” 하셨으니, 대중은 이 뜻을 도리어 아느냐, 마느냐? 한즉, 도득재삼삼(徒得再三)이로다. 표고버섯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두말이나 사 보내어 먹기는 잘 먹겠으나 너무나 미안한 일이며 하도 잘 싸 보내어 하나도 허실 아니 되고 잘 왔으며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 너무 심려한 일 미안막심이다. 어느 때나 만나 볼런지 내가 서산낙일(西山落日) 다 되므로 자연무상이 느껴진다. 이곳 산중은 일체로 잘들 있으며 용음도 잘 있다. 부디 공부를 잘 하여라. 총총 이만 그친다. 사진 두 장도 잘 받았다.

계미(1943년) 칠월 염일(炎日)  
노사 만공 신서(信書)

또 같은 해 보내신 계송이다.

인연법이 이와 같도다.

동성비구니에게 보이다.

미혹함이 곧 꿈이며

깨달음도 또한 이 꿈이라.

미혹함과 깨달음을 놓아버리면

참으로 이 꿈 께 비구니로다.

불기 2970년 계미(1943년) 12월 8일

줄며 꿈꾸는 나그네 만공 쓰다.

그 이듬해 본공 스님이 38세 때 만공 스님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어 무상이 신속하므로 용맹정진하기를 부탁하였다.

본공 보아라.

궁금하던 차에 생각지도 않던 친찰(親札)을 받고 보니 일색(日色)이 반갑다. 무사히 환사(還寺)하였다니 천만다행이며, 선행(善行)을 만나 같이 들어갔다니 잘된 일이며, 대중이 모두 일체청정(一切淸淨)을 하시며 산중(山中)이 동일(同一)하느냐? 이곳 처처(處處)는 한산중이 한결같이 무고(無故)들 하니 멀리서 호법(護法)하는 덕이리라. 무상(無常)이 신속함을 자주 깨우쳐 용맹으로 정진 잘하여라. 총총 그친다.

갑신(1944년) 음력 3월 19일

곤몽객(困夢客) 만공(滿空) 회신(回信)<sup>17)</sup>



우측부터 명성, 경희, 본공, 선행스님

13) 경희 스님의 증언.

14) 지장암은 월정사의 산내 암자로 남대 지장암으로 불린다.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월정사와 함께 창건하였다.

15) 1996년에 경희 스님의 상좌 명인 스님이 도갑 소임을 맡아 지장암선원을 麒麟禪院이라 이름 했다. 16) 만공 스님의 제자.

17) 한글편지는 당시의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맞지 않기에 현대어로 바꾸어 해석한 것이다.



42세(1948년)에는 해인사 국일암<sup>18)</sup>에 최초의 비구니선원을 열고 입승을 사셨다. 당시 해인사에는 청담 스님과 성철 스님이 계셨고, 해방 후 처음으로 총림이 개설되어 절하는 의식과 장삼 등의 복식을 새로 정비하였다고 한다.<sup>19)</sup> 그 후 효봉 스님 회상에서 5년여에 걸쳐 정진하여 범열의 기쁨을 누렸다.

또 스님이 국일암에 머물 때 손상좌인 명성 스님을 얻게 되어 매우 좋아하셨다고 한다. 당시 관음 스님께서 강릉 포교당에 주석하시면서 본공 스님 앞으로 명성 스님을 출가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공 스님의 상좌인 선행 스님이 상좌가 없었기 때문에 선행 스님을 은사로 하여 출가하게 되었다. 본공 스님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명성 스님을 손상좌로 두게 되어 몹시 기뻐하셨다고 한다. 그것은 훗날 대강백이 되어 비구니계의 큰 거목이 될 것을 미루어 짐작하셨기 때문일까. 한 번은 범어사 대성암에 입승으로 계실 때의 일이다. 손상좌인 명성 스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갓 삭발한 스님을 칠성각에 불공을 드리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량석과 쇠송을 한 스님은 그만 큰 방의 어간으로 들어가는 실수를 하였다는 일화를 들려 주셨다.<sup>20)</sup> 이처럼 손상좌인 명성 스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은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불러 늘 축원을 해 주셨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sup>21)</sup>

다음은 45세(1951년) 때 석우 스님께서 내리신 친설이다.

비구니 각환 보이라.

환상인 줄 알면 곧장 벗어남이니

방편을 지을 필요가 없고

벗어난 줄 알면 곧장 깨달음이니



양산 내원사 선방에서 우측부터  
본공, 법희, 수옥스님(1964년 3월)

또한 차근차근 닦을 필요가 없다.

또한 말해 보라. 방편도 아니고 점차도 없는 이것이 무슨 경계이고?

그것은 바로 각환 비구니로다. 억!

불기 2978(1951)년 월 일

풍악비구(楓岳比丘) 석우(石友) 설하다.

示比丘尼覺幻, 知幻即離不作方便, 知離即覺亦無漸次, 凡道不方便無漸次, 是甚魔境界, 只是箇覺幻比丘尼, 咄. 佛紀二九七八月日, 楓岳比丘石友說.

이것은 본각과 돈오에 대한 법문으로 『원각경』을 인용하여<sup>22)</sup> '각환'의 법호를 설명하신 내용이다. 우

리의 신심과 지견이 다 환화(幻化)의 허망한 경계이다. 이 일체 허망한 경계를 떠나면 곧 본각성을 수순하는 것이다. 어찌 다시 방편을 지어서 점차로 닦겠는가. 오로지 수승한 원돈(圓頓)의 근기여야 가능할 것이다. 스님의 수행경계를 짐작케 하는 내용이다.

또한 스님은 월내 묘관음사 향곡 스님 회상에서 3년간 수행정진하였으며, 47세(1953년)에는 범어사 대성암에서 3년간 안거에 들어갔다. 그 후 양산 내원사, 동화사 부도암, 양진암, 내원암 선원 등지에서 수행정진하셨고, 당시 큰스님들께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스님은 제방 선원에서 입승을 사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수선안거의 철저한 수행생활로 일관하셨다. 그러다 스님은 1965년 음력 2월 27일, 세수 59세, 법랍 40세를 일기로 대구 기린산 서봉사에서 입적하셨다.

#### 4. 수행의 특징

##### 1) 철저한 신심

스님의 수행가풍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철저한 신심 그리고 기도와 참선의 일치이다. 스님은 31세(1937년) 만공 스님 권유로 윤필암에서 3년간의 안거를 마치고, 7월 보름 해제를 맞이하였다. 스님은 "오대산 신선골로 가서 한암 스님을 친견하라"는 만공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해 초겨울 도반인 대현(大賢), 선경(禪敬) 스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차가 없어 걸어서 강릉을 지나 사천을 넘어가는데 도중에 눈이 많이 내려 앞뒤를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 문득 길을 잃고 헤매는데 갑자기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 스님 앞을 지나갔다. 눈 덮인 첩첩산중에 웬 강아지냐는 생각이 들었으나, 기이한 마음이 앞서 강아지를 쫓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얼마를 가니 상원사 기와집이 눈앞에 나타났고, 그 순간 하얀 강아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때마침 상원사의 저녁예불 범종소리만 산천의

적막을 울리고 있었다. 무사히 상원사에 도착하여 이 사실을 한암 스님께 말씀드렸더니, "신심이 있으면 어떠한 일도 극복할 수 있다. 그 하얀 강아지는 강아지가 아니라, 문수보살의 화신이었느니라"고 하였다. 이 일화는 스님의 신심과 참선에 대한 열정에 감응하여 문수보살이 도와주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후 스님은 한암 스님을 친견한 후 오대산 지장암에 선방을 개설하여 입승을 사시며 수년 간의 수선안거를 하였다. 이 밖에도 통도사 보타암·범어사 대성암·내원사·남해 도성암·묘관음사·동화사 부도암 등지에서 수행정진하였으며 남자의 본분을 한 치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 효봉·향곡·석우 스님 등 대덕 스님들이 "본공은 예사 비구니가 아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고 한다. 또한 스님께서는 늘 경희 스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수좌는 반드시 신심이 있어야 하며 애써 공부해야 한다"고 하셨으며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후학들에게 항상 "선객은 신심으로 애써 공부해야 된다. 신심이 없으면 절대로 깨달



금강산 구룡폭포 가는 허공다리 위에서  
(우측부터 대현, 본공, 선경 스님)

18) 해주 스님은 「한국 근·현대 비구니의 수행에 대한 고찰」, 2006년 6월 비구니포럼자료집, 35쪽에서 1944년 대원 스님이 처음 개설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해해 스님은 이와 달리 해방 이후 본공 스님께서 최초로 선원을 열고 입승을 사셨다고 기억하고 계셨다.

19) 해해 스님(경주 흥륜사)의 증언.

20) 명성 스님(전국비구니회장, 운문사 회주 및 학장)의 증언. 21) 경희 스님의 증언.

22)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大正新修大藏經』 권17, 914上)의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知幻即離, 不作方便, 離幻即覺, 亦無漸次."



을 수 없으며 참다운 수행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셨다.

## 2) 참선과 기도의 일치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만공 스님께서 보내신 법어인 인연법의 실체가 없음을 설파한 '여시인연법(如是因緣法)', 금강경 사구계를 쓴 '계문(偈文)', 달마 대사「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의 일부로 공부법을 일러 주신 '사본공니(賜本空尼)' 계문과 해제 상당법어와 관련된 편지 '계명이 보아라', 무상의 신속함을 깨우쳐 용맹정진을 당부하는 편지 '불종종연생(佛種從緣生)', 석우 스님께서 본각과 돈오에 대한 법문으로 주신 '시비구니각환(示比丘尼覺幻)' 등의 내용들은 스님의 수행력과 법에 대한 간절한 구도의 열정 등을 보여 주는 좋은 예들이다.

대중에서 스님은 늘 '임승스님'으로 불려졌다. 만공 스님께 인가를 받은 후부터 제방의 선원에서 수선안거를 할 때마다 임승의 소임을 맡았기 때문이다.

스님은 평소 '선이 기도요, 기도가 선'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정신의 집중이며, 또한 선과 동일한 것이고, 스님의 수행관을 잘 드러내는 것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스님은 해제 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하였고, 길을 가다가도 물고기나 못 생명 등이 죽게 생겼으면 반드시 사서 방생을 하였다고 경희 스님께서도 회고하셨다. 또한 스님의 수행 모습은 넉넉한 인품에 장부의 기상이 있었으며, 비구들도 꿈쩍 못할 수행력이 있었다고 한다.

## 5. 나가는 말

금강산 신계사 만세루 앞에는 현재 사각의 돌기둥이 있다. 이 돌기둥에는 '시주표(施主標)'라 써 있고 또한 '박사득(朴四得)'이라고 새겨져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신계사의 어려운 살림에 많은 시주를 하신 사득 스님을 기리는 공덕비이다.<sup>23)</sup> 처음에 언급했듯이 사득 스님은 바로 본공 선사의 노스님이다. 사득 스님은 평양의 부잣집 따님으로 태어나 유점사 홍선암으로 출가한 후 유점사를 비롯하여 금강산 일대의 절마다 많은 시주를 하셨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금강산유점사열반계안서(金剛山楡岾寺涅槃案序)'<sup>24)</sup>에 전하고 있다.

본공 선사가 출가하신 득도암도 바로 사득 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근의 인연으로 사득 스님을 필두로 한 금강산 유점사 홍선암 문중들은 스님께서 만년에 주석한 서봉사를 중심으로 '봉래문중(蓬萊門中)'을 형성하여 그 법맥을 잇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오대산 월정사 지장암, 대구 기린산 서봉사, 우리나라 최대의 비구니 교육도량인 청도 운문사, 서울 성심사 등을 중심으로 번창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비구니 문중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

본공 선사가 살았던 시기는 한국불교사에서 근현대<sup>25)</sup>에 해당한다. 당시에 비구니선원의 상황을 대략 살펴보면 만공월면(滿空月面)(1871~1946) 스님의 영향으로 1916년 1월 수덕사 전성암에 최초로 비구니선원이 개설되었다. 비구니선원으로는 수덕사 전성암(1916)에 이어 내장사 소림선원(1924, 세만), 동화사 부도암(1927, 성문), 직지사 서전

(1928, 성문), 대승사 윤필암(1931), 월정사 지장암(1937, 본공), 해인사 국일암(1944, 대원), 해인사 삼선암(1945, 성문) 등이 차례로 개원하였다.<sup>26)</sup>

수행의 방법에 있어서는 개인에 따라 오롯이 한 가지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두 가지 이상을 겸수하였으며 전 분야에 걸쳐서 두루 섭렵한 경우도 있다. 근·현대를 살다간,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는 비구니스님들<sup>27)</sup>의 수행 양상을 일단 5분야에 배대한 것을 살펴보면, 본공 선사의 경우 참선과 간경 그리고 선원의 가람수호 및 대중외호를 두루 겸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8)</sup>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본공 선사의 수행 특징은 철저한 신심과 아울러 참선과 기도의 일치이다. 스님은 한평생을 선객의 풍모로 오롯하게 수행정진하셨다. 법어나 문집이 남아 있지 않지만 수행력이 뛰어난 분이셨다는 것을 큰스님들의 법서와 같이 모시고 살았던 스님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스님의 수행관은 철저한 신심과 깨달음을 얻기 위한 끝없는 구도 그 자체였다. 그리고 기도가 곧 참선이라는 생각으로 중생교화의 원력을 실천하셨으며 해제 때면 반드시 기도를 하셨다고 한다. 한 시대의 비구니의 조실 역할을 맡아 살아오신 스님은 엄격하면서도 매우 자상하고 인자하였으며 고집스러운 만큼 청빈한 수행자의 삶을 사신 무소유의 눈 푸른 수

행자였다. 이렇게 일생 동안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신 스님의 수행은 지금도 후학들의 모범이 되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 참고 문헌

- 『金剛般若波羅密經』.
-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 경허성우 편, 『선문환요』, 이철교 역, 민족사, 1999.
- 법기문중계보 편찬위원회, 『比丘尼法起門中系譜』, 1994.
- 봉래문도회, 『봉래문중 계보』, 서봉사, 2006.
- 불학연구소 편, 『조계종사 — 근현대편』,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0.
- 운문사, 『雲門會報』 10, 1984.
- 제정 스님, 「금강산에서 띄우는 편지 — 유점사 비구니스님 문중」, 『불교신문』, 2005. 9. 7.
- 청룡사, 『靑龍寺誌』, 1972(4월).
- 하춘생, 『깨달음의 꽃』, 도서출판 여래, 1998.
- 한국비구니연구소, 『비구니와 여성불교』 5, 2003.
- 해주, 「한국 근·현대 비구니의 수행에 대한 고찰」, 비구니포럼자료집, 2006. 6월.

26) 해주, 「한국 근·현대 비구니의 수행에 대한 고찰」, 2006년 6월 비구니포럼자료집, 35쪽.

27) 하춘생의 『깨달음의 꽃』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 펴낸 『선원총람』, 『강원총람』, 『한국근현대불교사연표』에서 언급한 스님들을 중심으로 하고 입적한 스님에 한하였다.

28) 해주, 「한국 근·현대 비구니의 수행에 대한 고찰」, 2006년 6월 비구니포럼자료집, 41쪽 참조.

① 참선: 상근, 궁탄, 법회, 금룡, 성문, 월해, 일엽, 만성, 수인, 도준, 해옥, 수옥, 정행, 대영, 선경, 법일, 도원, 진오, 만선, 본공, 윤호, 깨유, 인홍, 광호, 장일, 창법, 혜준, 응민, 세동.

② 간경과 교육: 경봉, 궁탄, 법회, 금룡, 성문, 수인, 해옥, 수옥, 정행, 법일, 본공, 은영, 광호, 세동.

③ 가람수호와 대중외호

선원: 세만, 성문, 만성, 도준, 법일, 도원, 진오, 본공, 윤호, 깨유, 인홍, 혜준, 대원, 수옥, 상명, 선진, 인홍, 성련, 장일, 원만, 세동.

강원: 금룡, 수인, 정행, 은영, 광호, 자현, 세동.

교화사찰: 윤호, 사득, 태수, 수능, 상근, 수인, 은영, 자현, 해옥, 도준, 만선, 성문, 광호, 수옥, 법일.

④ 염불기도와 포교복지

염불주력과 기도 의식: 상근, 천일, 궁탄, 자현, 성문, 수인, 본공.

포교복지: 자현, 만선, 수인, 해옥, 수옥, 일엽, 세동, 천일, 광호, 해옥, 은영.

⑤ 중무행정

종무: 궁탄, 인홍, 깨유, 수인, 해옥, 수옥, 법일, 은영, 혜준, 천일, 장일, 혜준.

계단: 정행, 광호, 수인, 인홍.

23) 제정 스님, 「금강산에서 띄우는 편지 — 유점사 비구니스님 문중」, 『불교신문』(2005. 9. 7).

24) 원본은 현재 서울 청량사에 보관되어 있다.

25) 해주, 「한국 근·현대 비구니의 수행에 대한 고찰」, 2006년 6월 비구니포럼자료집, 33쪽.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 펴낸 『조계종사 — 근현대편』을 보면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근현대 시대를, (1)근대교단의 태동(1876~1910), (2)민족불교의 시련과 극복(1910~1945), (3)불교의 자주화와 교단개(1945~1962), (4)대한불교조계종의 성립과 발전(1962~1999) 등의 4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근대의 시작을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어 개항이 시작된 시점으로 보고, 1945년 8·15해방 이후부터 현대로 본 것이다. 근대는 다시 1910년 한일합방을 기점으로 하여 전후시기로 나누고, 현대는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의 성립을 중심으로 전후 둘로 나눈 것이다.



## 새로운 삶의 시작, 죽음

진 성 / 대교과

부처님께서 사문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 사이에 달렸느냐?”  
 “며칠 사이에 달렸습니다.”  
 “너는 도를 모르는구나.”  
 다시 다른 사문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 사이에 달렸느냐?”  
 “한 끼의 밥을 먹는 동안에 달렸습니다.”  
 “너도 도를 모르는구나.”  
 또 다시 한 사문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 사이에 달렸느냐?”  
 “한 호흡 간에 달렸습니다.”  
 “그렇다! 네가 바로 도를 아는구나.”

삶과 죽음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대교반 진성입니다.

대중스님, 오늘 갑자기 내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웃으면서 떠나실 수 있으십니까?

가쁜 숨을 몰아쉬며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달려가고 있는데, 죽음을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사일여란 말이 있듯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은 삶과 둘이 아니므로,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즉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증일아함경』에는 “저러한 중생들이 윤회하여 받은 몸에 온기가 없고, 덧없이 변하여 오온이 나누어져 오온의 몸을 버리고 목숨과 기관이 끊어지고 파괴되는 것을 죽음이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곧 죽음이란 오온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거짓된 나’가 인연이 다해서 호흡이 정지되고 체온이 상실되어 의식이 없게 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제한된 삶의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냄으로써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을 준비가 아니라 삶의 준비인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well-dying은 삶을 진솔하고 슬기롭게 꾸리고 죽음을 진지하게 성찰하고자 하는 고민이 담겨 있는 운동으로 불교의 생사일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서나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장례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장기기증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주위에 밝은 웃음을 전파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well-dying의 한 방법입니다. 저는 살아 있는 장례식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죽어서 추모를 하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들과 그동안 서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좋은 죽음 준비는 ‘죽음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스님, 지금 눈을 감고 어두운 방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벽에는 티베트인들의 조상 풍경사진이 걸려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십니까? 방안으로 더 들어가면 나무 관이 하나 보입니다. 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눕습니다. 이제 하얀 천을 얼굴에 덮습니다. 자,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나는 괴롭게 죽고 있습니까?

미소 지으며 죽고 있습니까?

이제 육신의 호흡과 심장은 멈추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빛의 존재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어떠한 인간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관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죽음을 사유하게 되면 ‘이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호스피스 운동에 평생을 바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인생수업’이라 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단순한 진리를 배우며, 오늘 우리가 불행한 것은 단순한 진리를 놓치고 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대중스님, 삶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죽음명상을 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여유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며, 남은 삶이 한층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또한 한 개 한 개의 돌맹이로 정성스럽게 돌탑을 쌓듯이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을 정성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느 달이 좋은 달이며, 어느 날이 좋은 날이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극락에 있을 때, 내가 있는 이곳도 극락입니다. ॥



## 원효의 『열반경종요 (涅槃經宗要)』에 대하여

정 문 / 대교과

### 목 차

1. 서 론
2. 원 본
3. 구 성
  - 1) 열반문
  - 2) 불성문
4. 결 론

### 1. 서 론

『열반경종요』는 『대반열반경』의 중요한 종체(宗體)와 교적(敎迹) 등을 간요하게 논석한 것이다. 원효의 현존하는 다섯 가지 - 『대혜도경(大慧度經)』, 『법화경(法華經)』, 『열반경(涅槃經)』, 『무량수경(無量壽經)』, 『미륵상생경(彌勒上生經)』 - 종요(宗要) 가운데서 『열반경종요』가 가장 분량이 많다. 이 문헌은 그 다루고 있는 원전과 원효 자신의 연구내용으로 보아 원효의 저술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저술이라고 한다.<sup>1)</sup> 본고에서는 『열반경종요』의 구성과 여기에 나타난 원효의 열반관과 불성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2. 원 본

『대반열반경』은 소승과 대승의 두 종류가 있다. 소승의 『열반경』은 석존 입멸시의 사정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여 기록되고 있으며, 석존 입멸 후의 교단의 의지치가 '법'과 '자신'에 있음을 밝혀 법과 율을 중심으로 교단을 운영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승의 『열반경』은 석존 입멸의 사실을 계기로 하여 부처의 본질이 법신에 있음을 말하고 불신상주(佛身常住),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일체제성불(一闍提成佛)의 사상을 주된 가르침으로 하고 있다. 원효의 『열반경종요』는 대승의 『열반경』 중 혜엄(慧嚴)(303-443) 등이 번역한 남본(南本) 36권 『열반경』을 저본(底本)으로 하고 있다.

### 3. 구 성

이 『종요』는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대의(大意)를 약술(一者 略述大意)하였으며, 다음에 자세하게 열고 분별(二者 廣開分別)하여 풀이하였다. 첫째 문(門)의 '述大意'에서는 "본디 열반의 도(道)라고 하는 것은 도가 없으면서 도가 아님이 없다"로 시작하여 『대반열반경』의 제목 풀이에 이르기까지 간략하면서도 매우 깊이 있게 그 경설의 요의를 서술하였다.

둘째 문인 광개분별(廣開分別)에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먼저 경을 설하는 인연을 설명(初說因緣)하고, 다음에 경교(經敎)의 종지를 밝히며(次明敎宗), 세 번째에서 경의 교체(敎體)를 드러내고(三出經體), 네 번째에서 교적(敎迹)을 분별(四辨敎迹)하고 있다.

원효는 특히 두 번째인 명교종(明敎宗)에서 다시 열반문(涅槃門)과 불성문(佛性門)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경종(經宗)을 자세히 밝혀 놓았다. 열반의 뜻을 밝힘에 있어서는 포의(包義), 체상(體相), 통국(通局), 이멸(二滅), 삼사(三事), 사덕(四德)의 6문(六門)으로 나누었다. 불성의 뜻을 밝히는 데에도 또한

여섯 문으로 나누어, 출체(出體), 인과(因果), 견성(見性), 유무(有無), 삼세(三世), 회통(會通)의 문으로 하고 있다.

이들 열반과 불성의 두 부분이 『종요』 전체의 분류로 볼 때 작은 항목으로 보이고 있으나 이 두 부분이야말로 원효의 열반관과 불성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훌륭한 두 편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열반학에서는 열반과 불성이 곧잘 혼동되었지만, 원효는 이와 같이 양분하여 조직적으로 논구하고 있으니 주목할 만한 점이다.<sup>2)</sup>

#### 1) 열반문(涅槃門)

##### (1) 포의(包義)

6문 중 포의에서는 먼저 ①열반의 번역문제에 대하여 번역할 수 있다는 견해와 번역할 수 없다는 두 견해를 소개하고 ②열반의 뜻을 해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열반을 번역할 수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열반을 멸도(滅度)라 번역하고, 열반을 번역할 수 없다는 주장은 외국어는 이름과 뜻을 함용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으로 번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열반의 뜻을 해석한다는 것은 열반에는 밀어(密語)와 현료어(顯了語)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밀어의 의미에서 보면 열반은 많은 뜻을 포함하기 때문에 번역할 수 없지만, 현료어는 그 부류의 음성에 따라 널리 중생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멸도라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효의 이러한 도리로부터 볼 때 양자의 주장이 모두 회통될 수 있다고 하였다.

##### (2) 체상(體相)

체상에서는 ①열반의 체성(體性)을 밝혀내고 ②열반의 허실(虛實)을 밝힌다. 먼저 열반의 체성에는 무구진여(無垢眞如)와 과지(果地)의 모든 덕이라는 두 견해가 있다. 무구진여를 열반의 체로 보는 견해는 열반이 부처의 법성(法性), 법성공(法性空), 자성청정(自性淸淨)한 것, 진여증지(眞如證智)라는 것

에 근거한다. 이렇게 보면 시각(始覺)은 열반의 체성(體性)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과지의 모든 덕이 열반의 체라는 견해는 본각(本覺), 시각(始覺)을 구별하지 않고 열반의 체성을 말한 것으로 열반의 삼사(三事), 대아(大我), 일체 지혜, 삼신(三身)이 드러내는 무상보리(無上菩提)가 여기에 속한다.

열반은 허(虛)인가 실(實)인가, 공(空)인가 불공(不空)인가 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열반의 체성은 참으로 진실한 것이어서 결정코 공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과 생사열반은 모두 허망하여 空·無所得이므로 불법도 공하지 않음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두 주장에 대해 원효는 종래의 학자들은 자신들의 교상판석에 따라 각자가 근거하는 경전에 의지하여 열반이 空 또는 不空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원효는 먼저 그 말만을 취해서 보면 모두 불의(佛意)에 어긋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만, 단지 결정된 집착이 아니라면 법문이 서로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 주장 모두 타당하다고 하였다.

##### (3) 통국(通局)

통국에서는 열반이 공통되는 것이냐 국한되는 것이냐에 대해 부파불교의 독자부(犢子部)와 살바다부(薩婆多部), 그리고 대승의 열반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 (4) 이멸(二滅)

이멸에서는 먼저 성정열반(性淨涅槃)과 방편괴열반(方便壞涅槃)에 대해 밝히고 다음에 유여열반(有餘涅槃)과 무여열반(無餘涅槃)에 대하여 밝혔다. 성정·방편괴열반이 동일한 진여를 근거로 하는 점은 같다. 성정열반은 진여·법성으로 일체 중생에게 공통된 것이며, 방편괴열반은 수행하여 번뇌를 소멸한 뒤에 나타나는 열반이다. 유여·무여열반의 구별에 대해 소승불교에서는 유여열반은 번뇌장이 소멸한 것이라 하고, 무여열반을 완전한 열반이라 본 경향이 있다. 대승불교에서는 유여·무여열반에 대한 명확

1) 이기영, 『원효의 열반종요에 대하여』, 『한국불교연구』, 한국불교연구원, 1983.

2) 木村宣彰, 장휘옥 역, 『원효대사의 열반사상 - 원효사상의 현대적 조명』, 『민족불교』2, 청년사, 1991.



한 구별은 없으며, 오히려 붓다의 자비정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여열반이 중생구제의 취지에 더 부합된다 하겠다.

#### (5) 삼사(三事)

삼사에서는 열반의 특성을 법신(法身), 반야(般若), 해탈(解脫)의 세 가지 일을 들어서 밝혔다. 대승 불교 시대가 되면서 부처는 역사성을 벗어나 순수한 이(理)로서의 법신이 된다. 열반을 이미 이(理)라고 하면, 그때 열반은 법신과 결합된다. 또 열반은 번뇌장과 소지장을 여원 점에서 지혜와 해탈의 두 가지 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법신(法身), 반야(般若), 해탈(解脫)을 열반의 삼덕(三德)이라 한다. 법신은 불지(佛地)의 일체 공덕으로 유일한 법계이며, 영원한 진리이다. 반야는 법신의 성품이 스스로 맑고 통달하여 비추지 않는 데가 없는 것으로 생사의 분별을 떠나는 지혜이며, 해탈은 법신이 모든 번뇌의 계박(繫縛)을 떠나서 장애 되는 것이 없는 것, 즉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다. 열반의 이 세 가지 특성은 그것이 함께 갖추어지고, 평등하고, 원만한게, 일시에 동체(同體)가 되어야 열반이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 (6) 사덕(四德)

사덕이란 상락아정(常樂我淨)을 말하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상(常)이란 열반의 경지는 생멸 변천이 없다는 것으로 법신의 뜻이 된다. 락(樂)은 생사의 고통을 떠나는 것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열반의 뜻이다. 아(我)는 중생이 자아가 없다는 것에 대한 것이며, 일여(一如)가 된 몸은 망집(妄執)을 떠난 진여 그대로라는 것으로 부처의 뜻이다. 정(淨)은 번뇌의 더러움을 여의었다는 것으로 법의 의미이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사덕은 상호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다. 즉 사덕이 법신, 열반, 반야, 해탈의 뜻이 된다는 것이다.

원효는 열반의 많은 덕 가운데 오직 이 사덕만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 네가지 장애<sup>3)</sup>를 없애고, 네가지 환란<sup>4)</sup>을 뒤엎고, 네가지 전도<sup>5)</sup>를 대치(對治)하고, 네가지 상<sup>6)</sup>을 여의기 위해서라 하고 있다.

#### 2) 불성문(佛性門)

먼저 출체(出體)에서는 불성(佛性)의 체(體)를 총론(總論)적으로 밝히고 있고, 인과(因果) · 견성(見性) · 유무(有無) · 삼세(三世)의 사문(四門)에서는 각각 불성의 인과문제, 어느 지위에 이르러서 불성을 볼 수 있는가, 불성의 유무의 차별을 밝힘에 있어서 성인(聖人)의 지위에서 보는 것과 범부(凡夫)의 입장에서 보는 것, 불성이 삼세에 관련되느냐 관련되지 않느냐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면상 생략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회통(會通)은 6문 중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sup>7)</sup>

#### (1) 출체(出體)

불성(佛性)의 체(體)를 밝힘에 있어 원효는 불성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간추려 여섯으로 나누어 보이고 있다. 첫째는 '당래(當來)에 있을 불과(佛果)를 불성의 체(體)로 삼는 설'로서 백마사 애법사(白馬寺愛法師)가 서술한 축도생(竺道生)의 뜻이다. 둘째는 '현재에 있는 중생이 불성의 체가 된다는 설'로 장엄사 민법사(莊嚴寺 旻法師)의 뜻이다. 셋째는 중생들의 마음은 목석(木石)과 달라서 반드시 고(苦)를 싫어하고 락(樂)을 구하는 성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행(萬行)을 닦아서 마침내 무상보리(無上菩提)의 즐거운 과(果)를 얻게 된다. 이 '중생의 심성을 정인 불성(正因佛性)의 체로 삼는 것'은 광택사 운법사(光宅寺 雲法師)의 설이다. 넷째는 '마음 가운데 신령스러워 잃어버리지 않는 성품을 정인불성의 체로 삼는 것'으로 양무소연천자(梁武帝蕭衍天子)의 설이다. 다섯째는 '아뢰야식(阿賴耶識)의 법다운 중자가 불성의 체가 된다는 설'로서 현장 등의 설을 가리킨다.<sup>8)</sup>

여섯째는 '암마라식(庵摩羅識)의 진여해성(眞如解性)을 불성의 체로 삼는 설'로 『보성론』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설에 대하여 원효는 "불성의 체는 바로 이 일심(一心)이며, 일심의 성품은 모든 변견(邊見)을 멀리 떠나기 때문에 도무지 해당되는 것이 없다.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없다."라고 서술하여 취심론(就心論)과 약연론(約緣論)의 양면에서 논하고 있다. 먼저 취심론에 의하면 마음은 인위(因位)도 아니요 과위(果位)도 아니며, 진제(眞諦)도 아니요 속제(俗諦)도 아니며, 인(人)도 아니요 법(法)도 아니며, 기(起)도 아니요 복(伏)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약연론에 의하면 마음은 기(起)도 되고 복(伏)도 되며, 법(法)도 되고 인(人)도 되며, 속제(俗諦)도 되고 진제(眞諦)도 되며, 인위(因位)도 되고 과위(果位)도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비연비불연(非緣非不緣)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 주장이 모두 옳기도 하고 모두 그르기도 하다고 하여 화쟁(和諍)의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 (2) 회통(會通)

원효의 열반관이나 불성의 뜻은 회통(會通)에서 보다 명료해지는데, 여기서는 불성의 뜻은 무량하지만, 정리하면 다음 5종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첫째 성정문상주불성(性淨門常住佛性)은 불성은 제일의(第一義)의 공(空)한 것이요 이것이 곧 중도(中道)이며 일승(一乘)이라는 것이고, 둘째 수염문무상불성(隨染門無常佛性)은 불성이 대신심(大信心) · 사무량심(四無量心) · 사무애지(四無礙智) · 삼매(三昧) 등이라는 것이다. 셋째 현과불성(現果佛性)은 현재의 과위(果位)이니 이는 모든 부처님이 얻은 것이며, 넷째 당과불성(當果佛性)은 당래에 있을 부처의 과위이니 중생들이 다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일심비인비과(一心非因非果)는 불성은 바로 일심(一心)이어서 인위(因位)도 아니요 과위(果位)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 다섯 번째가 원효의 독자적인 불성의 뜻이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앞의 두 가지의 인(因)과 뒤의 두 가지의 과(果)는 그 성품이 들어 아

니어서 오직 일심이다. 이 일심의 성품은 오직 부처님만이 몸소 증득한다. 그러기에 이 마음을 불성이라 이름한다."고 결론 짓고 있다.

#### 4. 결론

위와 같이 열반(涅槃)과 불성(佛性)의 의미에 대해 『열반경중요』에서는 회통(會通)의 기본 관점에서 정립하고 있다. 비연비불연(非緣非不緣)의 논리로 대변되는 화쟁(和諍)은 경전 상에 나타나는 상이한 내용들을 화회(和會)시키는 원효만의 방법이다. 비연비불연(非緣非不緣)은 부정과 이중부정, 즉 부정과 긍정이 이원론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이것은 변증법처럼 하나로 합일되어 새로운 이름이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씨실과 날실이 엮어져 직물(織物)이 되듯 비연(非緣)과 비불연(非不緣)이 일심(一心)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작용일 것이다. 이 일심은 대립되고 모순되는 모든 것들을 자신 속에 포괄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초월해 있는 평등하고 원만한 해탈자인 중생심(衆生心)으로 화쟁사상의 근거가 되고 있다. 〽

#### 참고 문헌

1. 김형효, 『원효의 대승철학』, 소나무, 2006.
2. 이기영, 「원효의 열반중요에 대하여」 『한국불교연구』, 한국불교연구원, 1983.
3. 木村宣彰, 장휘옥 역, 「원효대사의 열반사상 - 원효사상의 현대적 조명」, 『민족불교』2, 청년사, 1991.
4. 김영태, 「원효의 불성론」, 『불교사상사론』, 민족사, 1992.
5. 조수동, 「원효의 열반사상」, <http://blog.naver.com/mdpsjk>

3) 네가지 장애 - ①일원제(一闍提) ②외도 ③성문 ④연각 4) 네가지 환란 - ①무상(無常) ②고(苦) ③무아(無我) ④부정(不淨)

5) 네가지 전도 - ①무상계상(無常計常) ②고계위락(苦計爲樂) ③무아계아(無我計我) ④부정계정(不淨計淨)

6) 네가지 상(相) - ①연상(緣相) ②인상(因相) ③생상(生相) ④괴상(壞相)

7) 김영태, 「원효의 불성론」, 『불교사상사론』, 민족사, 1992 8) 木村宣彰, 같은 논문



## 참, 조용하군.

- 「박사가 사랑한 수식」을 읽고 -

효 은 / 대교과

“... 정답을 얻었을 때 박사가 느끼는 것은 환희나 해방이 아니라 조용함이었던 것이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장소에 정확하게 자리하여 덜고 더할 여지없이 오랜 옛날부터 거기에 한결같이 그렇게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있으리란 확신에 찬 상태... 따라서 조용하다는 말은 최대의 찬사였다.”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핵심적인 표현은 적멸, 즉 조용함이다.

번뇌가 모두 끊어진 자리, 시비분별을 여의고, 법에 한 치의 거스름도 없는 경계 등등의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그 조용함의 자리를 이 책은 일상적인 부분에 투영하고 있다. 부엌에서 반찬을 만드는 파출부의 모습, 그저 단순한 동작이 하염없이 되풀이될 뿐인데도 마지막 한 개가 완성될 때까지 지켜보곤 진지한 표정으로 ‘정말 조용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내면으로부터의 깊은 응시. 그래서일까? 깨달음은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부딪치는 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고 틀림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 저 멀리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 더욱 가슴으로 밀려왔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바깥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없이 오롯이 수학의 진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자신이 기울인 정열에 대해서 피력하지도 않으며 명예나 보상 따윈 더더욱 생각지 않는 겸손하고 한결같은 그의 모습은 출가 수행자의 이상적인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다.

“... 자 보라구. 이 멋진 일련의 수를 말이야. 220의 약수의 합은 284, 284의 약수의 합은 220. 바로 우애수야. 쉬 존재하지 않는 쌍이지. 페르마도 데카르트도 겨우 한 쌍씩밖에 발견하지 못했어. ... 아름답지 않은가? 자네 생일과 내 손목시계에 새겨진 숫자가 이렇게 멋진 인연으로 맺어져 있단니.”

박사는 자신이 사랑하는 수학의 세계를 아름답고 우아하게 표현해 낸다. 단순하고 지루하게만 보이는 숫자와 기호의 풍부한 내면을 드러내어 충분히 사랑스러운 의미를 창출한다. 그렇게 하다보면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숫자가 없다. 사람과의 관계 맺음도 숫자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곧 숫자들이 서로 얼마나 만나기 힘든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두 사람의 사이에 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낸다. 숫자에 관한 것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으며, 아무리 어린 아이의 질문이나 답변이라도 상대가 무척 뿌듯하게 느낄 만큼 충분히 칭찬하고 답해주는 것이다.

그런 박사님의 자상함과 수의 세계에 매료되어 전혀 수학에 관심이 없던 이도 숫자에 대한 용기와 관심을 갖게 된다. 박사가 내준 질문을 화두마냥 하루 종일 생각하고, 혹은 일을 하다 말고 냉장고에 붙은 제조 번호나 무심코 떨어져 있는 계산서의 숫자를 놓고 의미를 찾아 나서게 만들며, 아이는 수학 선생님이 되게 했던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오직 불법만을 생각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얼마나 아름답고도 간결하게, 일상적으로 풀어놓을 수 있는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소중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음을 조용하게 말할 수 있을까?

순수한 마음으로 박사님 곁에 다가가 보길 바란다.

아마도 우리에게 ‘자네의 생일은 언제인가, 신발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 하고 다소 무뚝뚝하게 물어볼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면 박사님 손끝에서 술술 흘러나오는 숫자들의 나열에 매료될 것이다.

낯설고 어렵기만 하던 수학이 시적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만남만으로도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박사와 파출부, 그녀의 열 살 배기 아들 루트 사이에 오가는 확고한 믿음과 우애는 누구에게나 훈훈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리라. 



## 비교종교 학자에게서 종교에 대해 듣는다.

오강남 /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종교학과 명예교수

### 들어가면서

저는 연말 『운문』지 편집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봄에 펴낸 책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를 접하고 원고를 청탁하고 싶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은 사실 불자들이 아닌 이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교의 더욱 깊은 면을 쉽게 소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쓴 책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그 책이 불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궁금해 했는데, 몇몇 불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고, 특히 2006년도 불교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불서 10'에 선정되기까지 하여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던 차에 편집부에서 그 책을 보고 원고청탁을 하게 되었다니, 기쁜 마음으로 그 청탁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청탁을 즐겨 수락한 또 다른 이유는 제가 1988년 7월 송광사에서 열렸던 보조국사의 사상을

주제로 하는 국제불교 학술회의에 참석했다가 회의가 끝나고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보조국사 유적지를 답사하는 여행길에 올랐는데, 그 여행길 첫날 운문사에 들려 하루를 묵어간 인연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그때 찍은 사진들을 꺼내 보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도 그때 '동심초'를 불러주던 젊은 스님, 마당에 드리워졌던 아름다운 소나무, 이무기가 있었다고 하는

웅덩이, 다음날 있었던 아침 강연회에 참석한 그 빛나는 눈들, 우리 일행이 떠날 때 버스 타는 데까지 와서 손을 흔들어주던 환한 얼굴들, 이제 모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 왜 이웃 종교를 아는 것이 좋은가?

요즘은 '타종교'나 '다른 종교'라는 말보다 '이웃 종교'라는 말을 더 즐겨 쓰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세계가 지구촌이라 불릴 정도로 여러 문화,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어서 모두가 서로 이웃이 된 셈이고, 이런 이웃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바로 이웃 종교이기도 합니다.

이웃 종교를 이해하여야 할 이유를 대략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 내 이웃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이해하려 한다는 것은 그의 나이, 가족 관계, 교육배경, 사회적 위치, 외모 등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를 진정으로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그 이외에 그의 생각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그가 가진 가장 높은 이상과 가장 깊은 확신을 아우르는 그의 종교를 이해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종교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좀 거창한 이야기입니다만 세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일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아일랜드, 이라크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이 모두 순전히 종교 분쟁이거나 종교에 의해서만 촉발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종교와 관련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종교에 의해 더욱 악화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종교 간의 이해만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보기도 곤란하지만, 적어도 종교 간의 이해가 없이는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곤란하다는 것

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 간의 대화가 없이 종교 간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종교 간의 평화가 없이 세계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한 신학자 한스 쾅(Hans Küng)의 말은 진실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내 종교를 더욱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 종교적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웃 종교를 알아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철수는 지금껏 밥 먹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한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이네 집에 가보았더니 그 집 밥 먹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화기애애한 사귄이었습니다. 철수에게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다시 영수네 집에 가보았더니 거기에서는 밥 먹을 때 예의를 갖추는 일,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내친 김에 순이네 집에도 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밥을 먹도록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한 하늘과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음식 자체를 고맙게 여기는 일을 밥 먹기에서 중요한 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이런 집에 가서 그들의 밥 먹기를 알아본 것은 자기네 밥 먹기가 진리이고, 다른 집 밥 먹기는 비진리라는 것을 설득하거나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집들의 밥 먹기를 보고 그런 집에 양자로 들어가려는 것도, 자기 친구들을 자기 집에 양자로 들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한평생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 삶에서 나의 밥 먹기가 어떠한 것이었나를 더욱 분명히 깨닫고,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나의 밥 먹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교종교학의 창시자 막스 뮐러(Max Müller)가 한 말, "한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참으로 귀담아 들을 말이라 생각합니다.



니다. 제 자신의 경험으로 보아도, 제가 캐나다에 와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교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에서 '믿음' 뿐 아니라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그 한 가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종교의 흐름

지금 지구촌은 여러 다른 민족과 종교들이 어울려 살고 있는 다종교(多宗教) 사회가 되었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 종교계나 학계에서는 현재 몇 가지 뚜렷한 흐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21세기 종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부합된다고 여겨지고, 특히 한국 불자들과 관계 있을 만한 몇 가지만 일별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리 중심에서 체험 중심의 종교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특히 서양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면 일정한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억지로라도 믿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두뇌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에서 온몸으로 체험하는 종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교리를 이해하여야 하지만 이것도 체험을 더욱 확실하게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합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둘째, 기복 중심에서 깨달음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서양 불자들은 종교의 기복적 요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를 자기나 자기 집단의 이기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복적인 요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복을 빌더라도 나와 내 집단만 아니라 전체 사회나 전 인류의 안녕과 평화를 비는 큰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셈이지요. 아무튼

비는 종교, 믿는 종교에서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사물의 더욱 깊은 차원을 깨달아 가는 과정을 통해 참자유를 얻는 것을 종교 생활의 주목적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 고립에서 사회 참여로 넘어갑니다. 종교적 삶이 내 개인의 안녕이나 마음의 평화만을 위한다는 소극적 태도에서 사회를 위해 더욱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 불자들 중에는 '참여 불교' (Engaged Buddhism)라고 하여 혼자 조용한 곳에 가 명상만 하며 일생을 보낸다고 하는 생각 대신에 우리 주위에서 고통당하는 동료 인간들이나 기타 생명체와 함께 아픔을 함께 하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 직접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보살행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자들 중에 인권운동, 평화운동, 생태계보존운동, 동물권리보호운동에 참가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넷째, 남녀차별에서 남녀평등으로 넘어갑니다. 서양 그리스도교에서도 이제 많은 여성 목회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중에도 여학생 숫자가 남학생 숫자보다 더 많은 신학교도 많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서양 불교에서도 남녀 차별이 사라지고 남녀가 같은 선방에서 함께 참선을 하고, 더욱이 여자 지도자들이 참선을 지도하는 경우도 흔한 일입니다. 여자 수행자들이 남자 수행자들보다 많아지게 됨에 따라 불교 수행이 여자들의 특수한 영적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성 불자들의 권리가 신장되고 이와 함께 대내외적인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위에서 말한 사회 참여에 여성들의 참여도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종교적 경향이 우리가 21세기에 바라는 종교적 이상에 가깝게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물론 어느 종교에나 옛것에 무조건 집착하고 이웃 종교에 대해 극히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

하는 것이 마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자기들의 사명이라 고집하는 '근본주의' 입장이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고, 현대 사회가 안겨주는 '불확실성'에 심히 불안해하는 어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독단적 확신이 일시적으로나마 그들의 정신적 닻으로 작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이제 지각 있는 이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이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불교에 대한 서양 학생들의 반응

북미 대학교 종교학과 과목 중에서 불교 과목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 언제나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불교 과목도 거의 매년 개강 전에 정원이 차서 대기자 명단에 학생들의 이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미국 종교학회에 가 보아도 불교 분과에는 참석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여론 조사에서는 심지어 달라이 라마가 교황보다 더 인기 있는 인물로 뽑힌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서양 불자들 중에 비유적으로 유대인 불자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종래까지 가지고 있던 신관이 흔들린 결과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자기들을 특별히 택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믿었던 그들의 신이 2차 대전 중 유대인 대량 학살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뿐 아니라 일반 서양 지성인들도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신다고 믿던 인격적·초자연적 유신관(theism)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됨으로, 그 초월적·인격적 절대자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불교처럼 궁극 실재를 공(空)으로 이해하고 그 궁극 실재를 깨우쳐 알게 됨으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쪽에 더욱 큰 매력을 느끼게 된 셈입니다.

서양 학생들은 흔히 "I am not religious, but

spiritual."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나는 교회나 어느 특정 조직으로서의 종교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종교적인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인간의 궁극 관심사로서 인간의 가장 깊은 면과 관련된 '영성' (spirituality)에는 깊은 관심이 있다."는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교회는 비어 가지만 서양인들의 영적 추구가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 나가면서

20세기 가톨릭 신학자로 가장 유명한 칼 라너(Karl Rahner)는 21세기 그리스도교는 신비주의적인 종교가 되든지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든지 양단간 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교가 참된 영성을 회복하여야 살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의 영성적인 면을 강조하는 내면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서양으로 소개된 불교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오강남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종교학과 명예교수로 있으며 저서로는 『도덕경』, 『예수는 없다』, 『살아 계신 붓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 등 다수가 있다.



## 싸고 쓴 향내

- 산청 대원사 성우 노스님 -

금 룬 / 사교과



노스님을 뵈러 가기 전 나는 마음 한쪽이 웬지 무겁고 심란했다. 급변화 하는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공부할 지어나가는 스님들을 생각하니 난 너무 나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다.

한여름같이 쏟아지는 햇빛, 그 아래 지리산의 한 자락을 휘몰아와 연꽃빛을 뿜어내는 울창한 숲과 시원하게 뻗은 깊은 계곡들, 해발 800미터 고지에 자리 잡은 대원사의 짜임새 있게 잘 정리된 전각들을 마주하면서 내 머릿속은 조금씩 시원해졌다. 더군다나 동자승 같은 맑은 얼굴과 작은 체구에 거동은 불편하셔도 화통하고 거침없는 노스님의 말씀에 답답

하던 가슴이 푹 터지는 듯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할 말도 없어.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근데 이렇게 들으러 왔으니 그냥 하는 말이니깐 뽕 것 빼고 지을 것 지우고 써. 부처님도 49년 설법하시고도 한 말씀도 설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잖아. 글을 많이 알면 사는 데는 편리해. 말과 글은 중생을 위한 방편이지 道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세수 여든을 훌쩍 넘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정정하고 표현(흥내내기)이 풍부하신지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들 같았다.

일제시대에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신 스님은 여자라고 공부를 시키질 않아 열여섯 살이 되도록 학교를 가지 못하셨다 한다. 어느 날 동네에 야학강습과 부인회를 열어 글을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 계셔서 다행히 그곳에서 그토록 하고 싶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야학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해인사로 가서 출가를 해버렸고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던 스님은 ‘그 선생님이 출가할 정도라면 나도 꼭 중이 되어서 공부를 더 해야지.’ 하는 원을 갖게 되었다. 집안의 극심한 출가 반대를 꺾고 여러 번 도전(?)한 끝에 겨우 하동 쌍계사 국사암으로 가서 3일 만에 삭발하고 한 달 만에 계를 받으셨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 8·15 해방, 여수 사변, 6·25, 1·

4 후퇴 등등 하루도 예측할 수 없었던 시간 속에서 이리저리 피난 다니면서도 대중 시봉하기 위해 떡장사, 엿장사도 하고 십 리, 이십 리 길을 걸어 동냥(탁발)하는 것도 예삿일이었다.

“1·4 후퇴 때 대중 32명이 쫓 서서 피난 가는데 영암 스님은 앞장서 가시고 고봉 스님은 맨 뒤에 오시면서 힘들 때마다 법문을 해주시는데 참 환희심이 났지. 피난을 다 가 버려서 빈집이 많았어. 아무 집이나 들어가 각자가 싸은

양식으로 대중이 먹으면서 조그마한 방에 낮에는 비구 비구니가 모두 빙 둘러 앉아 정진하고, 밤에는 가운데 광목천을 쳐서 이쪽 저쪽 나눠서 자고, 큰스님 두 분은 옆에 조그마한 방에서 쭈그리고 주무시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지 몰라.”

‘飢寒에 發道心’이란 말이 있다. 그저 옛날 선사들의 얘기 속에서나 나오는 말로만 느껴지는 요즘,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께 불법공부란 선택의 길이 아니라 숨 쉬고 있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과목이었으며 생활 그 자체가 공부였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고봉 스님께서는 항상 이 모르는 놈만 생각하라고 하셨지. 싸고 쓴 향내라고. 남이 알아주길 바라고 공부하나? 그저 꾸준히 하다보면 내가 아는 거지. 죽을 때 확철대오했다는 생각은 없어도 자신 있게 가야지. 나도 죽을 때가 좀 걱정은 돼. 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하지. ‘될 대로 되라!’ 열심히 살고 공부해서 갈 때가 되면 깨끗하게 가는 거지. 무너지기 전부터 떠날 필요는 없잖아.”

노스님의 ‘될 대로 되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한 바탕 크게 웃었다. 당신만이 아시는 자신감에서 나온 말씀에 내 가슴도 후련해졌다. 언제쯤 나는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순간 노스님의 자신감이 부러워졌다.

“남의 말 따라가지 말고 젊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부해. 나처럼 늙으면 아프고 힘들고 게을러서 못해. 큰스님들 법문 들어보면 얼마나 간절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나?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딴 게 없어. 많이 아는 놈이 병이라. 단 한 마디라도 자기 마음에 꼭 박히는 말이 있으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야. 만공 큰스님께서 사람에게는 대자비심을 베풀고 공

부할 때는 극악극독심(極惡極毒心)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하셨어. 공부할 때는 극히 악하고 독한 마음으로 간절히 공부해서 참사람이 되라고 말이야.”

힘든 노구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가사를 수하고 금강경 1편을 독송하시고 매일매일 신문을 꼭 읽으신다는 시자스님의 말씀에 매일 새벽 백팔 배도 힘겨워 무너지듯 절을 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치절하게 열심히 살아오신 노스님과의 만남은, 아픈 것에 꼬달리고 사람에게 짐착하고 물건에 지배당하며 오래된 틀에 의해 만들어진 相에 얽매이고, 또 슬그머니 안주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분주하게 더하기 빼기를 하며 열심히 현실과 타협중인 나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과연 나는 얼마나 간절히 공부하고 있는가?

산 그림자가 드리워진 숲은 푸른빛으로 더욱 선명해졌다. 계곡에 흐르는 깊은 물소리처럼 한순간 모든 근심 걱정을 털어버려서 한결 깊고 시원해진 내 마음에 노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린다. ‘될 대로 되라!’ ☸





아원 / 사미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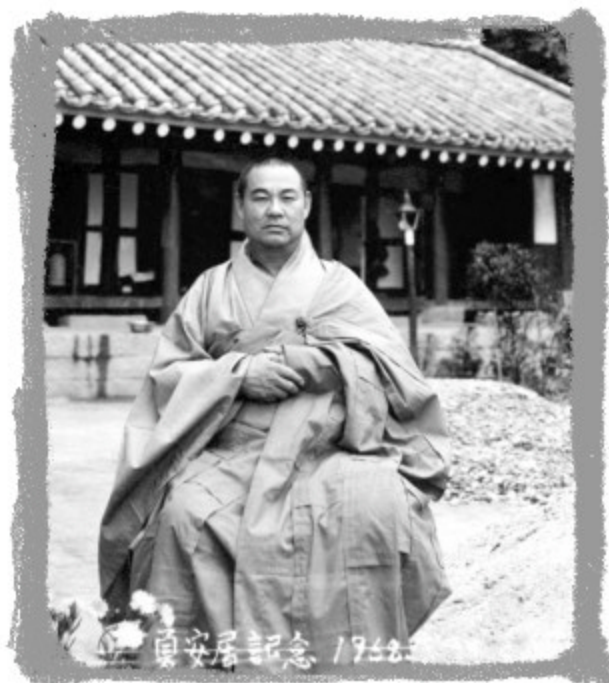
아원 / 사미니과





## 父母未生前 本來面目

석인 / 사미니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 넓은 세상, 부모님과 나는 어떤 인연으로 만난 것일까?

열여섯 살 나이에 문득 찾아온 의문은 평생의 화두가 되었고, 스무 살, 내원사를 무작정 찾아가 행자가 된지도 모른 채 시작한 출가생활. 삭발을 하고 계를 받고, 문고리만 잡아도 지옥고를 면한다는 기록한 선방에서 대중스님들 시봉으로 훌쩍 또 한 해가 흐르는 동안 마냥 좋아서 덤비기에는 질집 생활이 녹록한 것만은 아니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쯤

노스님 방 한쪽 벽에 걸려 있던 어느 비구스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위풍당당한 모습에 근엄한 표정. 그러면서도 어디에선가 발하는 자비로움과 온화함은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신에 위로가 되었다.

“노스님! 사진에 계신 큰스님은 누구세요?”  
구순을 바라보는 노스님께 사진 속의 주인공에 대해 여쭙었다.

“향곡 큰스님, 도인이여... 참으로 큰 도인이시지…….”

이후 일과가 일찍 끝나는 저녁이면 노스님께 큰스님 이야기를 청하곤 했다.

1912년 경북 영일군에서 태어난 스님은 16세 되던 해 이미 출가수행중이던 둘째 형을 만나기 위해 양산 내원사를 찾았다. 수좌스님들의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는 운봉스님께 참선하는 이유를 묻자 ‘일대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에 그 자리에서 출가를 결심하고 하산하지 않았다. 성월(性月)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고 스무 살 되던 해에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운봉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혜림(惠林)비구가 되었다. 이후 스님은 내원사 선방에서 운봉스님의 지도하에 10여 년간 용맹정진, 화두 타파 후 인가의 뜻으로 향곡(香谷)이란 법호를 받았고 경허 - 혜월 - 운봉으로 전수된 임제의 정맥을 이었다.

그러다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성철, 청담, 자운, 월산스님 등과 결사 수행에 들어간 어느 날 성철스님이 “죽은 사람을 죽여 다하여야 산 사람을 볼 것이지요, 죽은 사람을 살려 다하여야 산 사람을 볼 것인데, 어찌 생각하시는가?”라고 묻자 말문이 막힌 향곡스님은 ‘내가 견성한 줄 여겼는데 이러한 법문에 화연하지 못한 것은 고인(古人)에 비해 공부가 부족한 탓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스스로에게 속은 것에 분심을 내어 이 공안을 참구하며 용맹정진을 하게 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탑전에 앉아 정진하기를 삼칠 일째 되던 날, 무심삼매에 들어 비가 내리는 줄도 모르고 도량을 거닐다 문득 몸에 매달려 앞뒤로 흔들리는 양손을 발견하고는 확철대오(廓徹大悟)하게 된다. 곧 성철스님을 찾아가 그 화두에 대해 물으니 성철스님 또한 대답을 못하자 성철스님의 먹살을 쥐어 붙이문 밖으로 내동댕이치며 빗장을 걸어 누구도 열어주지 못하도록 엄명하셨다. 온 도량이 떠나갈 듯이 “문 열어라!”고 외치는 성철스님과 “한마디 일러라! 이르지 못하겠거든 하산하라”는 스님의 법거량이 밤새 계속되었다. 새벽녘 문이 열리고 두 분 큰스님이 어깨동무를 하고 춤을 추며 도량을

거니는 것으로 끝이 났다.

스님의 깨달음은 이내 제방 납자들의 입을 통해 전국으로 알려졌고, 제방의 청에 따라 여러 선원에서 조실로 주석하셨다. 이후 경남 월내에 묘관음사를 창건하고 선원을 열어 후학들을 제접하시다 1979년 1월 16일 세수 68세, 법랍 50세로 입적하셨다. 향곡스님의 전법제자인 진제스님은 큰스님의 유풍을 계승으로 지으면서 ‘삼세제불이 거꾸로 삼천 리나 물러감이라, 애달프다!’라고 그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머리에 불붙은 것을 끄는 것과 같이 해야 하고 감옥에서 고초 받는 이가 풀려나기를 바라는 간절함같이 공부해야 된다. 오직 공부하나만 하면 안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애써 공부하여 바로 알고 바로 바로 꿰뚫어 보면 일대사를 다 마치게 되는 것이다.”

- 병진년 동화사 상당법문 중 -

내가 누구인지, 세상사 이 많은 인연들은 어떻게 맺어진 것인지 막연한 궁금함에서 출발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라는 출가분상의 화두로 늘 걸을 떠나지 않는 의문이 큰스님의 법문 속에서 그 해답의 단초를 얻을 수 있었다.

큰스님의 말씀처럼 참된 신심으로 분심을 가지고 대의심을 가질 때 상상근기인으로 견성, ‘참 나’를 보리라. 풍채 좋으시고 상호 또한 원만하시어 호호법당(好好法堂)이라 불리던 향곡 큰스님. 생전에 빈 적은 없지만 늘 가까이서 ‘공부는 여윌한가?’하고 물어 주시는 분, 공부 잘해가기를 부탁하고 또 부탁한다는 스님의 말씀이 이근에 스친다. 나의 선지식이신 대선사 향곡 큰스님. 그 뜻을 잇는 대자유인의 삶을 발원하며 오늘도 척량골을 세우고 숨을 고른다. ☸



## 초심자의 불교

남기영



종교에는 철학이 합리화하기 어려운 무리함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철학을 하는 사람이 종교를 대하면 당황하게 된다. 이러한 종교적인 무리함을 대할 때 생겨나는 당황함도 지극히 철학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리함 때문에 종교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만이 철학적인 자세가 아니라, 놀라고 감탄하는 것도 철학적인 자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리함에는 비판할 수 없는 숭고함이 있기 때문이다.

나도 불교를 대하면서 참으로 엉뚱한 가르침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부처님의 행적이나 가르치심은 상식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엉뚱하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이 다투어 얻고자 하는 유복하고 우아한 삶을 버리고 고행의 삶으로 들어가신 사건도, 깨달음을 얻으시고 기뻐하신 사건도,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명령하신 사건도 납득하기 쉽지 않은 사건들이다.

언뜻이 피는 아버지의 궁전에 살면서, 철 따라 울

거 지낼 수 있는 궁을 세 개쯤 가지고, 종과 머슴에게도 쌀밥과 고기를 먹게 하고, 부모님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총명하고 유덕한 사람이 우아하고 유연하게 사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있겠는가? 사람들은 그런 삶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보

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거처를 떠나서 바람 부는 산으로 들어가셨고, 짐승들이 다가 오고 낙엽이 날리는 산 속에서 공포와 진율은 극복하셨지만, 육신은 배고픔에 시달리다 못해 마르고 말라서 늑골이 드러날 지경이 되었다. 그리고 고행은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물론 나는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른다.

여하튼 고행에서 나오시어, 네란자라강에서 목욕을 하신 다음에 마을의 소녀가 드리는 유미를 드시고, 우루베라 마을에 서 있는 보리수 아래서 명상에 들어 깨달음을 얻으신다.

그 때 부처님의 모습에는 기쁨이 가득 스며든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에는 절망이 될 수는 있어도 기쁨이 될 수는 없는 내용들이 있다. 연기하지 않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가 아닌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아인 것이 없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모든 것의 실상이 무상이고, 고이고, 무아라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승가를 이루고, 이런 진리를 가르치면서, 궁궐에서의 삶을 모두 잊으신 듯이 '괴곤하니 앉아야겠다. 옷옷을 네 겹으로 접어서 깔아 달라' 고도 하시고, 상업도시 베살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며, 인생은 감미로운 것' 이라고도 하신다.

제법무아라면 무엇이 성불할 수 있겠으며, 성불하는 이가 없다면 누가 부처님이 될 수 있겠으며, 부처님이 없다면 어떻게 열반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생겨나는 의문들이다. 그래서 의문들을 논리 정연한 질문으로 만들어서 여쭙었더니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은 질문을 무시하신 단순한 부답(不答)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론가들은 부처님의 침묵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논쟁을 계속하였고, 이러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유부론과 중관론도 2천년 동안 해석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독일의 프라우벨너와 벨기에의 드라 발레 뽀쟁도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다. 이들의 논쟁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라모트 교수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너희도 가르치고,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은 너희도 가르치지 말라' 는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들의 논쟁을 종결지으려 하셨다.

사실, 깨달은 분도 깨닫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깨달음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이며, 깨닫기 전에는 깨달은 분의 이러한 말씀을 온전하게 알아들을 가망성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부처님의 침묵을 이렇게 해

석한 사람 중에도 성불한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해석한 사람 중에도 성불한 사람이 있다. 결국 성불은 말과 이해와 해석을 넘어가는 것이고, 이론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엉뚱함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론적인 엉뚱함보다 더욱 무리한 것은 선을 행하면서 살라는 도덕적 명령이다. 유위와 무위의 일체법이 무아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나도 없고, 벌을 받을 나도 없는 나에게 선을 행하라는 명령은 참으로 무리한 요구이다. 조건이나 이유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은 참다운 선이 아니라는 말은 훌륭하지만,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은 도덕이다.

그러나 이러한 엉뚱함은 현실의 씨앗이 되어 이곳 운문사에서 자라나고 있지 않은가! 3시에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일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공부하시는 모습이 맑은 물 같고 환한 햇살 같으니, 이분들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어 고행 길로 들어서신 이유를 증명하시는 분들이 아니신가? 어찌 미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여 비판하고 부정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들의 종자인 보리심은 문(門)이고, 맑은 물이고, 밝은 햇살이라 한다. 세간의 맑은 물은 탁한 물과 섞이면 탁한 물이 되고, 세간의 햇살은 혼탁에 가려지면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탁한 물과 섞이면 탁해지는 맑은 물은 탁한 물을 맑게 할 수가 없다. 맑게 하고 밝게 하는 기술은 발달하는데도 물과 하늘은 탁해지고, 자동차가 가지 않는 곳이 없는데도 부모님의 기다림은 줄어들지 않고, 차를 마시고 난 초를 가꾸는 사람들은 많은데도 이야기는 맑아지지 않는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무아가 행하는 무심한 선은 이러한 세간의 선과는 다른 데가 있을 듯도 하다.

준엄함과 온화가 조화를 이룬 무심이 세상에 쌓이는데 세상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라도 합리적인 철학에만 얽매이지 않고 만나는 것마다 놀라고 감탄하는 늙은이가 되기를 원하여 보겠다. ☺



## 그저 바라만 볼 것을

강 분 석 / 귀농인, 수필가



농부가 되겠노라고 노래를 부르던 남편을 따라 시골에 내려온 지 올해로 어느새 10년이 되어간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 선뜻 자리를 잡게 된 데에는 집 앞에 서 있는 느티나무가 한몫을 한 것 같다. 처음 이곳을 보던 날, 하늘을 향해 수천, 수만의 가지를 뻗고 있는 느티나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으니까.

그 나무 밑에서 청둥오리 새끼들을 처음 본 것은 시골에서 맞은 첫 여름이었다. 멍멍이들이 요란하게 짹는 소리에 밖으로 나갔던 남편이 얼른 나와보라고 소리를 쳤다. 점심을 준비하던 손을 멈추고 나가보니 느티나무 아래에서 작은 새들이 종종걸음을치고 있었다. 청둥오리 새끼였다. 잠시 후 새끼들 뒤로 나타난 어미 오리는 뒤통뒤통 다리를 심하게 질었다. 남편은 어미 오리가 다리를 크게 다친 것 같다고 했다. 우리를 보았는지, 어미 오리는 어디론가 재빠르게 사라졌다.

다친 어미 대신 새끼들을 돌보아야 한다며 남편은 새끼들을 불잡아 집안에 들여놓았다. 막대기와 닭장

망으로 작은 우리도 만들었다. 우리 안에 물도 넣어 주고 병아리 모이도 넣어 주었지만, 녀석들은 물도 모이도 먹지 않았다. 굶어 죽으면 어쩌하나 걱정이 되어 동물병원에 문의하니, 개구리를 산 채로 먹서에 갈아서 먹이라 했다. 녀석들을 살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살아 있는 개구리를 갈아 먹일 수는 없었다. 마침 생선 남은 것이 있어 갈아서 주었건만, 녀석들은 입도 대지 않았다.

다음날은 비가 왔다. 우리 위로 커다란 우산을 씌어 준다. 비닐을 덮어 준다. 우리는 다시 한바탕 수선을 떨었다. 녀석들은 그러나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죽고 말았다. 땅에 널브러진 녀석들 앞에서 나는 오래도록 지장보살을 불렀다. 나중에 마을 어른들께 들으니, 어미 오리는 다리를 다친 것이 아니었다. 새끼들을 훈련시키느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그렇게 유난히 뒤통거린 것이라 했다. 몰라서 저지른 일이었지만, 우리의 부식함이 새끼들의 복숨을 끊어 놓았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서늘해진다. 양증맞은 발로 암벽 등반하듯 망을 타고 오르던 새끼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 이듬해에는 마음먹고 청둥오리 새끼들을 기다렸다. 멍멍이들이 짹는 때마다 느티나무 아래부터 살폈다. 그렇다고 그렇게 딱 마주칠 줄이야! 이번에는 어미가 앞장을 섰다. 새끼들은 어미 뒤를 따라 우리 대문 앞길을 가로질러 유미네 밭둑에 이르렀다. 폐를 지어 밭둑을 내려간 녀석들은 밭 옆을 흐르는 도랑으로 무사히 진입했다. 녀석들이 어미 뒤를 졸졸 따라 물 위를 두둥실 떠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우리는 휴~ 하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그리고 나서야 의문이 떠올랐다.

“가만! 저 녀석들이 지금 해엄친 거, 맞지?!”

셋째 해는 더욱 놀라웠다. 그날도 멍멍이들이 쾅쾅대는 소리에 거실 창가에 붙어 서서 밖을 살피던 남편이 “어~ 어~” 소리를 연발했다. 무슨 일이냐는 내 물음에 남편은 말없이 느티나무를 가리켰다. 나무 저 높은 가지에서 청둥오리 새끼들이 나풀나풀 떨어지고 있었다. 바람결에 날리는 꽃잎 같았다. 세 키의 몇백 배도 넘는 높이에서 떨어지는 녀석들의 몸짓이 내 머릿속에서 느린 화면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미가 먼저 낙하 시범을 보인 것인지, 느티나무 아래 어미 오리가 보였다. 목을 빼고 느티나무를 올려다보는 어미의 모습이 안타까워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얼마나 조마조마할까.

다행히 새끼들은 무사히 땅 위에 안착했다. 새끼들이 다 내려온 것을 확인했는지, 어미가 곧 행진에 들어갔다. 어미 뒤로 새끼들이 따라갔다. 나무 위에서 걸음마 연습이라도 한 것일까, 새끼들은 익숙하게 종종걸음을 쳤다. 새끼들의 여정은 지난해와 똑같았다. 우리 집 앞길을 가로질러 유미네 밭둑을 내려가 밭 옆을 흐르는 도랑에 도달하자 새끼들은 도랑물에 살포시 올라 두둥실 해엄쳤다. 낙하도, 걸음마도, 해엄도 생전 처음일 텐데 어떻게 저릴 수가! 남편도 나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내 두 눈으로 직접 본 사실이 나는 믿어지지 않았다.

새는 깨어나서 자신이 처음으로 본 움직이는 것을 어미인 줄 알고 그 뒤를 따라다닌다 한다. 어미 모습을 머리에 새긴다는 뜻에서, 이것을 각인이라 한다. 첫째 남편이 붙잡은 청둥오리 새끼들은 이미 나무 위에서 어미를 보았기에, 정성을 다해 보살폈건만 우리를 거부했나 보다. 그저 가만히 바라보기만 할 것을.

약력 | 40여 년의 서울 생활을 접고 10년 전에 충주시 양성면에 귀농하여 쌀, 복숭아, 잡곡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 짓는 틈틈이 홈페이지 양성닷컴(<http://angsung.com>)에 올린 시골과 농사 이야기를 모아 지난해 『씨앗은 힘이 세다』를 출간했다.



## 화두만 되면 땅 위에 하늘 아래 최고의 행복자야!

- 부산 영주암 회주 정관스님을 뵈고 -

해 감 / 대교과



이름에 비해 '화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관스님. 화두(話頭)는 '대불어(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 다녀와서 가르쳤는데 이제는 저희가 '대불어'에 참석하면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스님! 어린이 포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시잖아요. 어린이 포교는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래, 1980년대 어린이 불교가 시작됐어. 부산어린이 불교회장 맡으라고 해서 내가 안 한다고 했어. 근데 내가 대가사라는 절에 가게 됐을 때, 육련선원의 원장 김유옥씨가 어린이 교재 만들라고 등사판에 써서 밑어서 주소를 쓰는 거야. 그날 따라 날씨가 춥고 스산하더라고. 험한 마루에서 추운데 불도 쪼매한테 그걸 쓰고 있어. 그 모습을 보니 이렇게 추운 날 직장 있는 사람이 상사 몰래 나와 그러고 있는 게 너무 고마워 마음이 동요되더라고. 그래서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럼 나도 도와야겠다 싶어 회장 수락을 하면서 부산불교 어린이

멀리 평안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부산 영주암 원통보전. 정관스님이 계시는 곳이다. “언능 앉아라! 차 줄 테니까.” 경상도 특유의 무뚝뚝한 말씨 뒤의 빙그레 웃으시는 모습에 긴장했던 마음이 한순간 녹는 듯했다. 영주암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녹차의 빛깔과 향기가 방안 가득 채워졌다.

“매일 ‘佛’ 자를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한 35년 됐지 아마? 그때는 전기도 없고, 모두 뒷방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는데 범어사 조월스님 알제? 조월스님이 행각할 때 짚으로 만든 개집에 누워서 자고...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죽을 때 아미타불 열 번만 하면 극락 간다고 하시더라고. 그 당시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어. ‘참 대인이다’ 라고 느껴지더라. 탁 밀어지더라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다가 내가 72년에 영주암에 처음 왔는데, 그때 송병진이라는 변호사가 있었어. 이 사람이 반야심경 십만 번 쓰기를 願을 세워서 만 번 쓴 기념으로 표구를 해서 나한테 가져왔더라고. 그때 세속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뭔가 가는 길이 있어야겠다는 결심이 탁 서더라고. 그 때 조월스님 생각이 나서 佛자 쓰는 걸로 결심을 했지. 근데 한 3년은 나와 싸우는 거야. 괜히 시작해서 하기는 싫고, 안 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래도 3년 지나니까 저절로 되더라고. 만 장을 쓸 때까지는 아무도 안 주고 다 소해 버렸어. 그리고 나니까 글씨 형태가 잡히더라고. 지금은 후회 안 한다.”

이 말씀 끝에 30여 년을 올곧이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쓰신 佛자를 우리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셨다. 비록 단 한 글자이지만 수행자로서 열망하는 가장 최고의 경지인 佛의 세계가 노승의 필체에 오롯이 드러나 그 빛을 발하는 것 같았다.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행의 힘을...

잠시 한 모금의 차로 목을 적신 후, ‘불국토’ 창립당시의 일을 여쭙었다.

“불국토는 역사가 12년 정도 됐다. 지금은 고용증대가 오백 명 정도 되는 큰 복지기관이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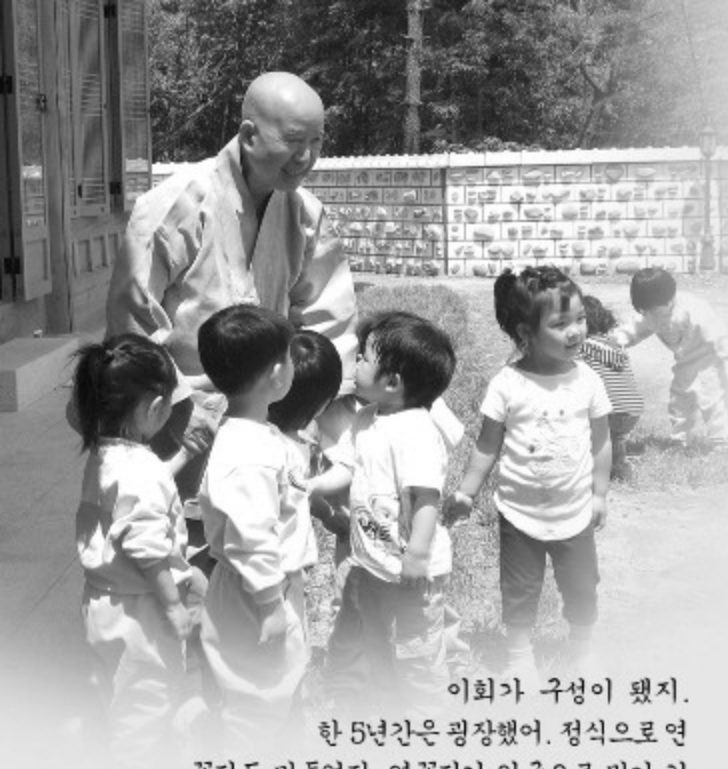
당시 지관스님이 재단을 팔게 돼서 내가 사서 이사가 되었지. 근데 복지를 위임 받으려면 재단이 있어야 되는데 양재 개금복지관을 우리가 복지재단이고 하니까 위임을 받았지. 이런 거 위임받으려면 로비가 보통이 아니야. 원불교, 기독교, 민간단체까지 다 경쟁을 하지. 대학교수들 여섯 명이 점수를 매겨서 당첨을 하지. 근데 우리는 스님들이 하니까 투명하게 관리를 했어. 그래서 부산에서는 ‘불국토’가 상징이 돼. 내가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건 고용증대가 오백 명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일을 할 거야.”

지금 불국토 재단이 개금사회복지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양정 재가노인 복지센터, 보현 어린이집, 컴넷 하우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용호어린이집, 영주암유치원과 어린이집, 상락정 배산 실버빌, 부산광역시 서부 노인 학대 예방센터까지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부산광역시 양정 청소년 수련관, 부산광역시 청소년 쉼터에 이르기까지의 발전을 이룬 것에 뿌듯한 웃음을 보이신다.

“스님! 저희도 어린이 법회 출신이에요. 저희가 어린이 법회 다닐 때, 선생님들이 ‘대불어(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 다녀와서 가르쳤는데 이제는 저희가 ‘대불어’에 참석하면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스님! 어린이 포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시잖아요. 어린이 포교는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래, 1980년대 어린이 불교가 시작됐어. 부산어린이 불교회장 맡으라고 해서 내가 안 한다고 했어. 근데 내가 대가사라는 절에 가게 됐을 때, 육련선원의 원장 김유옥씨가 어린이 교재 만들라고 등사판에 써서 밑어서 주소를 쓰는 거야. 그날 따라 날씨가 춥고 스산하더라고. 험한 마루에서 추운데 불도 쪼매한테 그걸 쓰고 있어. 그 모습을 보니 이렇게 추운 날 직장 있는 사람이 상사 몰래 나와 그러고 있는 게 너무 고마워 마음이 동요되더라고. 그래서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럼 나도 도와야겠다 싶어 회장 수락을 하면서 부산불교 어린이





이회가 구성이 됐지.

한 5년간은 굉장했어. 정식으로 연꽃지도 만들었지. 연꽃지가 외국으로 많이 간다고. 한 8개국 정도 일본, 미국, 호주까지, 나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상상을 해. 연꽃지가 자기 방에 탁 들어왔을 때 조국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게 느껴질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포교도 되고, 교육에도 그만인거라. 한글 교재도 되고, 그게 큰 보람이지. 8개국으로 가지만 11개국에 가는 역할을 한대요. 참 대단하지?”

한 사람의 애쓰는 모습에 대한 스님의 세심한 배려는 많은 이들이 어린이 포교에 대한 원력과 믿음을 낼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여름에도 여름불교학교를 하는 수많은 사찰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무엇보다 재미도 중요하지만 애들에게 정을 줘야 돼. 또 스님들은 사찰을 비우면 안 돼. 늘 사찰을 지키면서 애들이 오면 이런 거 저런 거 챙겨 주면서 그래야 애들이 오는 재미가 있어. 우리 애들이 지금은 다 시집갔지만, 내가 ‘佛’자를 쓸 때 내 옆에 앉아 먹 갈아 주던 게 지금도 가장 생각나는 큰 추억이래. 돈 몇 푼 주는 건 되지를 않아. 그런 걸 어떻게 돈 주고 사겠어? 애들 수련회 가면

꼭 찾아가 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줘야 해.”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정을 주어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은 요즘 컴퓨터에 메마른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 싶었다. 텅 빈 도량에 어린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멀리 퍼지는 듯했다.

“스님, 이번에 『간화선의 길』 책을 출판하셨는데, 간화선 초심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세요.”

“간화선은 되게 어려워. 화두는 의심이 일어나야 돼. 부처님은 워낙 많이 닦으신 분이라 저절로 의심이 되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성불 단계에까지 가신 거지. 중국에 들어와서 간화선이 발달이 된 건데, 육조 스님이 제자가 마당에 걸어오는 것을 보고, ‘걸어오는 저 놈이 뭐가!’ 물으시니까 대답을 못하다가 8년 만에 깨우친 거야. 탁 막혀야 의심이 일어나. 그러니까 대승불교에 와서 진짜 화두법이 잘 나온 거야. 그저 관법 이리지만 그건 부족한 거야. 그래 내가 주장하는 거는 화두의심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거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렵다 이거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야. 많이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나 하면 과거부터 복을 많이 짓고, 스님 생활하면서 공부하려고 몸부림 친 사람들이 금생에 조금만 탁 하면 의심이 난다 이거야.”

스님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제방의 남자 중 화두가 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나 싶어 이 책을 쓰셨다 한다. 앞으로 평생 공부할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었다.

“처음에 선방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졸고 있더라고. 폭 빠져 있어. 근데 이거는 보통 비관스러운 일이 아니잖아. ‘이건 아니다’ 싶었지. 그래서 수도암에 가서 하루 11시간씩 목탁을 치면서 백일기도를 했지. 그래서인지 지금은 내가 졸음은 항복 받았어. 원효암에서는 화두 들고 처음에 졸을 때부터 관세음보살 화두를 많이 했어. 염주가 자꾸 떨어지는 거야. 철사로 깨어도 졸이 떨어질 정도로 관세음보살을 반복했거든. 그리고 단식하면

서 관음정근을 하다가 새벽에 홀연히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는 이게 뭐가!’ 의심이 탁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불상이 싱거워져. 그럴 때 불상을 부수고, 흔히들 ‘법거랑 했다’ 하고 착란을 일으키지. 나도 그때 절하는 내 자신을 보고, 저것보고 내가 절을 왜 하는가 하는 생각이 일더라고. 그래서 우리스님(동산스님)한테 가서 말씀드렸더니 우리스님이 ‘그럼 그대로 해!’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대로 한 거야. 그때부터 관세음보살은 하고 있지만 사실 내 마음을 살피게 되는 간화선을 하게 된 거지.”

스님의 눈길이 벽에 걸린 은사스님의 사진에 한 동안 머물렀다. 공부가 막힐 때 언제나 물어볼 수 있는 선지식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를 알 수 있었다. 스님의 눈길엔 스승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이 베어 나오고 있었다.

“송화두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벌써 생각이 삼천포로 빠져 있어요. 댄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그게 없으면 송장이지. 그렇다고 번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탓하지 말고,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살아 있다는 증거라. 일어난다고 없애려고 하면 그게 또 번뇌잖아. 그렇지? 또 번뇌! 또 번뇌 만들지 말고 그냥 그대로 관세음보살하고 밀고 나가. 반복의 힘은 그런 거야. 그건 에너지가 돼서 일어날 수 있어.”

“안 돼도 자꾸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안 돼도 자꾸 하는 거야. 안 될 때는 자꾸 자기 최면을 거는 거야. ‘왜 못하니 병신아!’ 하면서 안 되는 걸 되게끔 밀고 나가는 거야. 마구니가 뭐 따로 있나? 하기 싫은 게 마구니잖아. 이 이상 더 큰 마구니는 없다. 그러니까 이겨내야 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자꾸 비껴야 돼.”

불법문중에 이제 갓 들어서 공부하는 학인들이 졸업 후, 선방에 가서 단 한 번이라도 크게 의심 일으켜 진정 공부하기를 원하시듯 몇 번이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또 일러주시는 스님. 한 번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면 혹여 포기라도 할까봐 간곡히 말씀해 주시는 스님. 꼭 어미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까봐 염려하는 그 마음을 후학들에게 고스란히 전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간화선, 화두선은 처음부터는 안 된다. 안 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 화두만 되면 땅 위에 하늘 아래 최고의 행복자야. 의단 독로만 되면 이상 더 극락에 갈 필요가 없다. 최고의 좋은 낙이 되는 거라. 그게 그저 쉽게 얻으려고 하면 안 돼. 전생부터 많이 지어온 게 있어야 해. 처음부터 거저 얻으려고 하면 안돼. 그렇지만 포기는 하지 말고, 기초를 닦아라.”

화두 타파를 하기 위해 일생을 다 걸고 공부하는 이 길... 진정 땅 위에 하늘 아래 최고의 행복을 누리보고자 던진 한 순간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방 안 가득 환하게 비치는 햇살 속에서 이 여름 오후, 수마를 이기지 못하는 게으름보다는 뜨거운 태양의 열정을 배워 의심 한 번 크게 일으켜 보겠노라고 서원해 본다.

돌아오는 길, 가슴 벅찬 신심으로 다시 한 번 출가를 한 듯했다.





## 한국불교,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 강원교직자 대만불교 교육연수를 다녀와서 -

효 탄 / 운문승가대학 강사

모든 것은 흘러간다. 無常이다. 때문에 더욱 더 기록을 남기는 것인가? 4·8일 행사를 마친 이틀 뒤 오후 1시, 숙소 돌돌 틈 없이 3박 4일의 불광사 - 중대사 - 법고사 교육연수를 위해 대만행 비행기를 탔다. 뒷정리도 안 된 채 매우 어수선한 마음이었으나 高雄공항에 내리자 그 마음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바로 뽀뽀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코 적지 않은 14곳 강원 60여 명의 비구·비구니 교직자 스님들이 버스를 두 대로 나누어 타고 시간 반 만에 남부의 불광산사에 도착, 바로 대웅전에서 간단한 양측 대표단의 인사말과 함께 입제식을 가

졌다. 불광사는 전에 들른 곳이라 낯설지 않았으나 연수인지라 조금은 긴장되었다. 대웅전 앞 화려하게 장엄한 4·8행사 灌浴臺를 뒤로 하고 기념 촬영 후, 저녁공양과 시설견학 후 가진 간담회는 밤 11시가 넘도록 진행되었다.

불광사의 명성은 익히 들은 바였다. 40여 년의 짧은 세월에 이러한 매머드 불사를 이룩한 것은 기적에 가까울 지경이다. 그러나 그 답은 '교육이다'라고 도감원장 慈轉스님은 명확히 말한다. 불광사의 처음 시작은 '佛學院(우리의 전통강원)'에서부터였다. 이후 개산조 星雲大師의 가르침에 입각해 교육불사를 통한 인재양성, 문화불사를 통한 불법의 포교, 자선활동을 통한 사회복리 증진, 수행 프로그램을 통한 마음의 정화를 병행하였던 것이다.

불학원 교과는 세부적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었으나, 한국 교과목과 다른 점이 많았다. 임제종맥을 잇고 있으나, 祖師語錄이 '성운대사 어록'으로 대치된 느낌이었다. 이

것은 중국 본토를 뒤로 하고 밀려 나온 대만 불교의 특징이나, 같은 시대에 살아 움직이는 큰 선지식이 있다는 것은 이들의 행운이 아닐 수 없다. 1967년 개창된 불광산사의 寺勢는 대만 내 70여 곳의 사찰과 라디오, 케이블 TV, 신문을 운영하고 세계 5대양 6대주에 200여 곳의 사찰을 관할하며 불교를 전하고 있다. 이처럼 40년밖에 안 된 짧은 역사를 가지면서도 불교의 사회화·국제화에 성공한 저력은 어디에 있을까? 한국불교의 교육체계가 대만불교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승가교육이 글로벌화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은 불학원 안에 이미 Lab실을 갖추어 놓고 있으며 10단계의 외국어 교육을 필수로 시키고 있었다. 도서관 시설도 장서와 규모는 물론이고, 학인들을 위한 좌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었다. 또한 대만을 다니다 보면 많은 재가자들이 사미승들과 똑같이 가사·장삼을 수한 채 수업 및 의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비구·비구니의 비율이 1:10~12 정도이다 보니, 위에 비구스님이 있고 피라미트 식으로 많은 비구니가 밑에 있는 모양새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겉모습일 뿐 비구·비구니(男女)平等, 재가자·출가자(僧俗)平等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정신이 재가자의 자연스러운 출가를 유도하며 비구·비구니 및 출가·재가의 融化和 尊敬을 이끌어 내고 능력별 평등을 바탕으로 한 인재불사와 조직력이 대만불교를 국제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음날 새벽예불에 이어 4000여 명이 함께 공양할 수 있는 '운거루'와 남·녀 불학원 견학시간을 갖고 중부의 중대선사로 바쁘게 향했다.

中台禪寺는 안내자의 말대로 '말이 필요 없고 눈으로 보시라'고 했듯이 불광산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찰이었다. 우리 돈으로 2조원이 넘는 財源이 투입된 36층, 115m, 연건평만도 2만 5천 평이 넘는 현대식 매머드 사찰로 좌선하는 모습을 본 듯



▲법고전달

다. 우리들이 늘 갖고 있는 사찰 건축의 전형을 깨는 획기적 중앙집중식 건축물이었다. 그러니 자연 입이 벌어질 수밖에... 그리고 그 안에 모셔져 있는 佛像과 시설물은 말 그대로 예술이었다. 도시락으로 준비된 점심공양 후 간담회에서 부주지 見達스님은 중대선사 역시 그 발전의 모태를 '교육-인재불사에 있다'고 강조한다. 교육불사를 바탕으로 오늘의 중대선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큰 규모의 사찰운영은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질문에 간단히 '창건주인 惟覺스님의 유지에 따르는 신도들의 순수한 보시에 의한다'고 잘라 말해 우리는 입을 다물기도 하였다. 일행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36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바꾸어 타고 올라갔으며, 건물 안 목탑을 참배하고 마지막 층에서는 共鳴을 경험할 수 있는 등근 원안에 서기도 하였다. 10년 전 설립된 중대 불학원은 학원부와 연구소가 있고 사미·사미니로 나뉘어져 교육하고 있으며 2년 과정의 대학부와 3년 과정의 고급부로 분리돼 있다. 연구소는 논문을 작성하고 논문이 통과되면 석사학위를 받는다. 임제종 계통의 선불교를 중심으로 교세를 펴고 있는 중대선사는 미국에 7곳의 禪센터를 개설하고, 홍콩, 방콕, 호주 등 전 세계에 100여 곳의 禪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900여 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초·중학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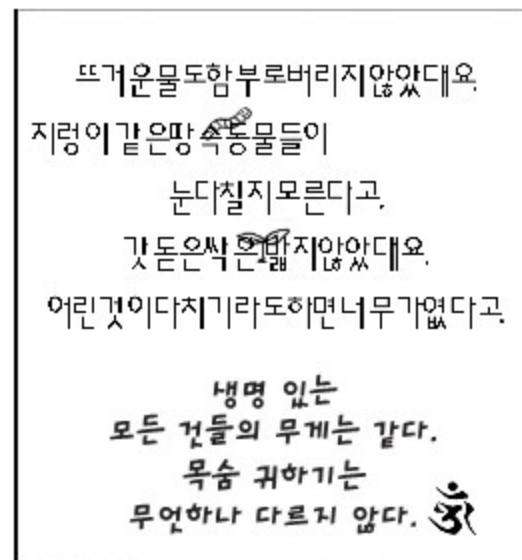
◀불광사 대불



## 옴 이제리니 사바하

(자기도 모르게 생명을 바로 밟아 죽인 죄를 밟는 진언)

편집부



모든 법은 목숨을 근본으로 삼는다.  
살생하지 않으면 목숨을 주는 것이요, 모든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깨일가는 보시란 목숨을 주는 것이니 천상에 태어나는 인(因)이 된다.

정법님취경(正法念處經)

끔한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가사와 장삼을 수하고 연신 땀을 흘리면서도 눈과 귀는 온통 집중한 채 그렇게 약간의 흥분과 긴장 속에서 짧은 일정을 보냈다. 바쁜 연수 여정 속에서 나름대로 전통과 현대화의 조화를 이룩해 낸 대만 불교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 1 開山祖 중심의 불교 - 개산조의 원력과 영도력에 의해 승가교육, 사회교육, 신도교육을 확립, 융화와 존경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 내에 대 가람을 일구어 내었다.
- 2 교육 없이 수행 · 포교 없다는 기치 아래 출발, 인재물사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불학원은 중앙정부의 인가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집중식 건축과 운영 - 비효율적인 동선거리를 없애고 건물을 현대화 · 복층화함으로써 집중성을 한층 높였다.
- 3 선교일치, 남녀 평등, 승속 평등의 실천 - 선과 교의 수행을 한 도량 내에서 하며 남녀 · 승속 차별을 없앴으로써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고 있다.
- 4 불교의 사회화 · 세계화에 역점 - 결집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대 사회적 봉사와 전 세계 네트워크를 도모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만 불교의 저력은 '철저한 교육과 제도를 통한 융화와 결집력(조직력)'이었다. 점동터위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대만불교 교육현장을 둘러본 강원교직자 스님들은 신선한 충격과 함께 '전통과 현대교육의 조화'라는 화두를 들고 돌아왔다. 부디 이러한 충격과 문제의식이 호지부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마련해 주신 교육원 종단관계자 여러분, 통역을 맡아준 조소영씨, 강원교직자 임원스님들 그리고 대만 측 불광산사 - 중대선사 - 법고산사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 글을 접는다. ॐ

▲중대선사

운영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고등학교 기공식도 가졌다 한다.

중대선사에서 4시간 臺北으로 이동하여 숙박하고 다음 날 세 번째로 찾은 곳은 북부의 진산 法鼓山寺였다. 이곳 역시 바쁜 와중에도 손님맞이 준비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법고사는 聖嚴대사의 원력 아래 '세계불교 교육단지'를 지향하며 8만 평의 부지에 사찰 자체를 대학캠퍼스처럼 꾸며 놓았다. 법고사의 첫 느낌은 마치 잘 계획된 완벽한 연구단지를 보는 것 같은 질서 정연함 · 차분함이었다. 법고사는 중화불화연구소와 법고산 승가대학 안에 불학원, 승려양성반, 선학원이 개원되어 있으며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석 ·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었다. 불학원은 4년제이며 출가 · 재가자 모두에게 입학이 허용되어 있고 입학 1년 후 자연히 출가를 하게 되는 경우는 90% 이상에 이른다 한다. 또한 6년 과정의 선학원은 심화된 禪 수행을 하는데 출가 · 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진지한 질의응답이 오가는 도중 대만 측에서 한국 강원의 최근 소식에도 정통함에 또 한 번 놀랐다. 법고산사에서는 중국식 점심 발우공양도 함께 하였는데 단 위에 높게 얹은 좌장 慧敏스님과 그 아래 질서 정연한 공양은 인상적이었다. 이곳에서는 간단하면서도 향료를 조금 덜 쓴 갈





## 청 소

여금/사집과

여름방학을 하여 본사에 돌아왔다. 한층 짙어진 나뭇잎 속에 핀 장미 덩쿨이 싱그러움을 느끼게 하는 계절이다. 나는 거처해야 할 반야당을 윤이 나게 걸레질한다. 우슬착지(右膝着地)하고 반듯하게 걸레를 집어 일정하게 닦는다. 방과 마루를 반들반들 닦아내고, 먼지를 움켜진 걸레를 앞마당 수돗가로 가지고 나온다. 여러 번 행구고 또 행구어 내면 마음까지 개운해진다. 꼭 짠 걸레를 털털 털어 햇살 가득한 뜰, 빨랫줄에 낸다. 담벼락에 흐드러지게 핀 조팝나무를 바라보니 행자시절이 떠오른다.

낮설고 힘든 일들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옷과 양말을 신은 채 쪽잠을 자고, 긴장이 가득한 마음으로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기상한다. 칠혹 같은 어둠을 헤치고 도량석을 하기 위해 법당 앞에 서서 '부처님, 실수 없이 잘 하도록 해주십시오.' 마음속으로 빌어 보았으나 결과는 어색하기만 했다. 백팔 참회 절을 올리면서 절정으로 치닫는 고비가 올 때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후원 일을 마치고 나오던 어느 날이었다. 결제 철이면 어김없이 선객스님들이 공부를 하러 오신다. 법랍이 십 년이나 훨씬 넘은 선방스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히 정랑 앞을 비질하고 계신다. 그리고는 칫솔까지 동원해 정랑을 구석구석 닦아내신다. 그 다음엔 신문지를 바르게 잘라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모아 철사에 똑바로 끼워 둔 다음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르신다.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스님은 "신심을 내어 초심으로 돌아가야 도움이 된단다."라는 말씀을 해주신다.

그때부터였던가? 나는 힘들거나 잡념에 시달릴 때면 구석구석 쓸고 닦는 버릇이 생겼다. 후원 일을 마치면 몸이 지쳐 있었지만 곧바로 정봉을 청소하러 간다. 수채 구멍까지 닦고 또 닦는다. 해제철에는 냄새 나는 정랑도 나의 몫이다. 구석구석 말끔하게 청소를 하고 나면 피곤했던 몸이 오히려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돌아 나오는 길에 산중턱에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이 비치는 연못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음을 머금기도 했다.

순간순간 발심(發心)하지 못할 때는 비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청풍당 뜰 방앗을 사각사각 비질 소리와 함께 쓸기 시작했다. '쓱쓱쓱' 쓸려져 나가는 먼지를 바라보니 '람충빠(주리반특가)'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부처님께서 람충빠에게 '먼지를 깨끗하게 하고, 냄새를 깨끗이 한다'라는 두 문장을 가르치셨다. 그러나 람충빠는 이것을 외우지 못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의 업장을 정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하시고는, 람충빠에게 "비구들이 벗어 놓은 신발을 열심히 닦아라."고 말씀하셨다. 람충빠는 그들의 신발을 닦는 동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두 문장을 외우게 되었다. "이제는 외운 두 문장을 계속 외우면서 도량을 말끔하게 청소하여라."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심히 청소를 해서 부처님의 은덕으로 업장이 말끔하게 정화되자, 람충빠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두 문장에 대하여 '먼지라는 것은 밖에 있는 먼지를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면 안에 있는 먼지를 말씀하신 것일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마침내 깨달음의 계승을 받게 되었다.

비질을 마치고 나니 정갈한 마당 너머 담벼락으로 나란히 핀 조팝나무 꽃이 고즈넉하게 보였다. 자기의 업장을 쓸어낸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수행을 이겨내어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람충빠의 깨달음에 다시금 발심을 하게 된다.

'먼지는 흙먼지가 아니고 업장의 먼지다. 먼지는 업장의 이름이지 먼지가 아니다. 지혜로운 자가 이러한 먼지를 버리게 되면 그것이 깨닫는 것이다'를 외우면서, 나는 내일도 모레도 비질을 계속할 것이다. ☸

수행이장수를 쓸고 닦으면 자신의 마음이 정화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정화되며,  
신선들이 좋아하게 되고 다음 생애 잘 생긴 외모로 태어나는 원인이 되며,  
죽었을 때 성토에 나는 연인이 되는 등 다섯 가지 공덕이 있다.

-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중 -



## 꿈

진 영 / 사교과

소녀 적 누구나 한 번쯤 꿈꾸어 봤을 것이다.

긴박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그 순간 어디선가 백마를 탄 왕자님이 나타나 나를 구해 주는,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의 도움의 손길을 받는 가냘픈 소녀가 되기도 하고, 푸른 눈을 가진 안소니의 매력적인 눈길을 받는 캔디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며 꿈꾼 적이 있었다.

그리고 자라면서 난 꿈꾸어 한 여자로서의 일생을 꿈꿔 본다. 잠깐의 행복도 있겠지만 너무나 지루하고, 무의미하고 무언지 모르지만 한쪽이 텅 비고 모자라 날 채울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괴롭기만 했다.

그래서 난 어머니께 출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께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길 “딸만 셋을 낳고 너를 임신했을 때 100% 아들일 거라는 확신에 열 달 내내 행복했었다. 가끔 꿈속에 바위에 앉아 있는 스님이 나타나서 찜찜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네가 선택한 길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겠니?” 하시며 날 담담히 보내주셨다.

어머니의 꿈처럼 삭발염의(削髮染衣)를 한 지금의 난 또 다른 꿈을 꾸다. 굳은 결심을 하고 무문관에 들어가 틈만 생기면 출몰하는 마장(魔障)을 이기고 3년 수행 끝에 확철대오(廓徹大悟)하고 화통하게 웃으며 한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가락은 땅을 가리키며 외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리고 유유히 자취를 감추고 사라진다. 이런 멋진 한 편의 영화를 나는 가끔 제작해 본다.

그러나 난 부처가 되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어느 날 손등에 앉은 모기를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다. 모기는 손 등에 앉아 피가 잘 나올 것 같은 곳을 찾는지 한두 번 침들기(입술)를 꽃다가 아닌 것 같으면 잡아 떼서 다시 꽃기를 두어 차례 반복하더니 드디어

명당을 찾았는지 머리를 박고 열심히 피를 빨기 시작했다. 배가 똥똥해진 모기, 이제 내가 슬슬 걱정이 되어 모기를 건드려 보았다. 그랬더니 힘들게 입술을 뽑고 날갯짓 몇 번 후에 책상 위에 앉더니 얇은 두 다리를 후들후들 거렸다. 너무 우스워서 웃는 나를 옆에서 보던 스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한 마디 한다.

“모기가 물어도 참는 것이 스님이 원하는 고행이예요?”

그 스님은 평소 열심히 기도하고 간경도 하는 기도제일 스님이었다. 그런데 순간 난 무섭게 올라오는 嗔心을 느꼈고, 그 스님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에!! 이것도 하나의 고행이라고 한다면 고행이지요. 저는 절을 할 때도 무엇을 바라고 구하는 마음보다 힘든 것은 싫어하고 편안하고자 하는 인연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절을 하고, 경을 읽을 때에도 나 자신보다는 유주무주 떠도는 영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하다 보니 그 스님은 어이없다는 듯이 나를 보고 있다. 나는 준비나 해놓은 것 같이 말을 계속했다. “스님처럼 보살님이나 신중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일(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분들은 원력대로 일을 할 겁니다. 빵을 주려고 내밀고 있는데 열심히 목탁을 두들기며 ‘빵을 달라, 빵을 달라’고 하는 꼴입니다.” 하며 열을 올렸다.

그 스님은 말없이 돌아서 가버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난 너무나 허전하고 착잡했다. 너무 내 방식대로 이야기해 버린 것이 아닌가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도 못가서 아상만 높으면서 그럴 듯한 포장지로 포장해 놓은 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들통나게 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들어왔다. 책상을 마주보고 앉았다. 안엔 가사를 수하고 곁에는 밝은 점퍼를 걸쳤다. 입술은 통통하고 코는 오뎅하고 볼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며 반질반질 윤이 났다. 그런데 눈, 눈이 보이지 않았다. 뽕연 안개가 끼여 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다.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한다. 그 스님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싫다’는 생각으로 나는 보이지 않는 눈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내 눈은 가시가 박힌 듯 아파오기 시작했고, 눈을 통해 나오는 찬 기운에 얼어버릴 것 같았다. 아! 고통에 눈을 감고 싶다. 하지만 안 된다. 눈을 감으면 지는 것이다. 난 더욱 눈을 크게 뜨고 뚫어져라 쳐다본다. 그러자 상대방 눈을 가리고 있던 뽕연 안개가 점점 얇아지더니 이내 하늘처럼 파란 눈이 보였다. 상대방은 입술 끝을 살짝 올리더니 “대단하군!” 하며 일어서서 문을 열고 나갔다. 나도 일어섰다. 그런데 그 스님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어느새 나는 뒷문을 향해 뛰어서 긴 복도를 달음질쳤다. 그 순간 그 상황을 보고 있는 내가 있다. 내가 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나? 두려웠던 것일까? 항상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오직 내가 두려울 뿐이다’라고 장담했었는데 ‘이중인격자! 내가 우습다!’ 그 상황을 비웃는 또 다른 나.

꿈을 꿔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항상 열심히 사는 척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거들먹거렸던 모든 행동들이 스쳐갔다. 나는 그동안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속이며 살아온 것이다. 그래서 성철스님께서 ‘자신을 바로 보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알겠다.

앞으로 모든 일에 걸림이 없으며 자유자재해서 굴림을 당하지 않고 굴릴 수 있는, 그래서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듯 나도 나에게 속지 않고 빙그레 웃을 수 있는 항상 깨어 있는 수행자가 되어 부처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래 본다. ☸



형민 / 사집과

형민 보아라.

패랭이 짙은 꽃잎은 올해도 어김없이 무리를 지어  
명부전을 늘 띄우게 한다.

대궁은 무고하신지?  
우리도 노스님 모시고 나날이 바쁘게 지낸다.  
도량 정비도 하고 꽃도 꽃고,  
하지만 서울 수업은 거의 참석치 못하고 지낸다.

치문 마치고 사집반으로 가니 아랫반도 생기고 시원섭섭하겠다.  
아름다운 도량-먼 은문산의 능선을 바라다보는 넉넉함이 있었으면 한다.

너의 고단한 현재가 미래의 삶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무릇 삶이란 100%의 만족은 없다.

나날이 후회 없는 삶이 되길 바라고  
대궁과 화합하는 공이 되어야 하며 없는 듯한 존재가 가장 좋은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도를 지키며 살길 바란다.

너의 공노릇에 찬란한 빛으로 기억되는  
강원생활이 되길 바라며  
用心을 다집하고 또 다집해라.

건강하게 한철 지내길 부처님께 기도한다.

開心寺에서 스승이.

은사스님께

녹음이 짙어진 산자락 끝엔 높은 하늘이 참으로 맑습니다.  
그 맑은 하늘 구름이 변화하고 변화하여 흐르듯  
저의 미혹함과 번뇌 망상도 뜬구름 같습니다.

사집 첫 철의 인연은 대궁스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는 때였습니다.  
긴장감과 살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해 보이는 자량이  
저에 이르러서는 공부법이었음에 감사함으로 수순하며 살아갑니다.

여름철 시작될 무렵 은사스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며칠짜리냐?”  
“너의 마음을 잘 챙기고 지내냐?”는 말씀이  
이곳 강원생활 속에서 차나차나 스쳐 지나갑니다.

은사스님!  
수많은 각양각색의 나무와 풀들이 우거져 거대한 숲을 이루듯,  
그 마음 마음을 내어 심미안을 가지겠습니다.  
밖으로 보여 지는 내 스스로의 체면에 속지 않을 것이며,  
항상 내면의 거울을 보는 그런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은사스님의 은혜가 한량없음에 깊이 신심을 가집니다.

새벽녘 대웅전 부처님 모시러 가는 길녘엔  
시방세계에 흠어지듯 보리자 향내가  
은 도량에 가득합니다.

은사스님!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방학 때 뵙겠습니다.

은문사에서  
상좌 형민 九拜.



##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자

편집부

형님의 모습이 누구와 닮았던고      我兄顔髮曾誰似  
아버님 생각날 쯤 우리 형님 보았었네.      每憶先君看我兄  
오늘 형님 그리지만 어디서 본단 말가.      今日思兄何處見  
의관을 갖춰입고 시냇가로 가는도다.      自將巾袂映溪行

\*연암박지연 이 「연암익선형(燕巖憶先兄)」중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리울 때마다, 아버지를 꼭 닮은 형을 바라보며 위안을 받다가, 세월이 흘러감에 그 형님조차 떠나고, 쓸쓸한 눈빛으로 맑고 고요한 냇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그리움 달래던 연암의 모습이 그려져 내 가슴도 한쪽이 먹먹해진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런 경험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리움, 설렘 혹은 반성의 모습일지라도, 어떠한 풍경이나 사물을 보며 그것으로부터 현재의 나의 모습과 마음을 비추어보고, 밖으로 향하여 구하는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물어보며 자기 내부의 불성과 본래면목을 밝히는 것이 마음공부하는 수행자의 결정적 과제로, 우리 집안에서는 이것을 회광반조(回光返照)라고 한다. 반야심경의 핵심인 '조견오온개공'에서의 '照見'도 역시 '비추어 본다'는 의미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정관념이나 편견, 선입견이나 어떠한 상(相)에도 머물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 : 정민, 『비슷한 것은 가짜다』, 태학사.

그러나 나를 바라볼 때 과연 맑은 시냇물에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비추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신을 바라보고자 하면서도 무의식중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열등감이나 혹은 외모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면, 자신이 제대로 비춰지지도 않을 뿐더러 혹 비춰진다고 해도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얼마 전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세간의 화제가 되었었다. 뛰어난 노래실력은 가졌으나 외모 때문에 대중 앞에 나서지 못하고, 반대로 뛰어난 외모는 있으나 노래실력이 없는 가수의 뒤에서 노래를 대신 해주는 '립싱크 전문 가수'로 살아가는 한 여자가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와 실력을 가진 가수로 거듭나며 부와 명예를 얻게 된다. 반면 자기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자 가족과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을 외면하게 되고, 성형한 사실도 탄로나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렸다.

그럼 수행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승복을 입는 것으로, 혹은 머리를 깎은 것으로, 조석예불을 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 수행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 겉은 수행자의 모습이지만 안으로 진정한 발심을 하였는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자신을 관찰하지 않으면 성형을 한 불행한 미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자신을 비춰 보기보다는 메스컴이 만들어 놓은 미남 미녀를 보며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도 자신이 그 미남 미녀가 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법당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보고 부처가 되려 한다면 부처될 날은 기약이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 보자.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조금도 보태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자.

내 못난 모습을 다 드러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작은 샘물에 가만히 얼굴을 비추며 자신과 솔직한 대화를 하는, 그런 수행자의 모습이 그리워지는 날이다. ☺





차례법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발원



포살



최완수 교수님 특강



갑자 리끼

## 운·문·소·식

- 6월 4일 여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고, 화계사 설정 큰스님의 하안거 결계법문이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 6월 9일 ~ 10일 제42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가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부처님과 하나 되는 여름 불교학교'라는 주제로 열려 교화부 스님 40여 명이 다녀왔습니다.
- 6월 19일 단오를 맞아 학인스님들의 산행이 있었습니다.
- 6월 21일 염불을 시작으로 명자, 서예, 꽃꽂이, 사군자, 일어, 영어, 컴퓨터, 요가, 피아노 등 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 6월 30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7월 2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30여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 7월 6일 여름철 포살이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 7월 7일 최완수 교수님의 '불상의 원류(중국 불상)'에 관한 특강이 선열당에서 있었습니다.
- 7월 8일 감자 캐기 대중운력이 있었습니다.
- 7월 20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7월 29일 중국 청화대 장미란 교수님의 '불전헌어'에 관한 특강이 선열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7월 31일 ~ 8월 2일 '지구사랑 부처님세상'이라는 주제로 제29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2박 3일간 있을 예정입니다.
- 8월 9일 30일간 여름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도와주신 분

- |             |            |            |
|-------------|------------|------------|
| • 대휴선원 주지스님 | • 우복사 진성스님 | • 김심순 불자님  |
| • 윤덕유 불자님   | • 윤덕자 불자님  | • 구신희 불자님  |
| • 이기태 불자님   | • 최상희 불자님  | • 김천수영 불자님 |
| • 한보산 불자님   | • 한순숙 불자님  | • 권혁창 불자님  |
| • 이원순 불자님   | • 이정법행 불자님 | • 정영미 불자님  |
| • 경천수 불자님   | • 오세영 교수님  |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靈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 370-7139 (FAX. 054-372-8834)

## | 등 불 |



응시 The Stare (Acrylic on canvas | 72.7×60.6cm)

안신입명 처에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네  
어떤 것이 진짜 얼굴인가  
꽃은 이슬 젖어 굵기만 하네.

安身立命處 魚臭亦魚聲  
那箇眞顔色 花含曉露明

- 무경자수(魚虎子秀)선사 -

『魚虎集』中

그림 | 박항률(www.hangyul.com)님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현재 세종대학교 예체능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여러 번의 전시회를 포함한 다수의 그룹전에 참가하였고, 저서로는 『비공간의 삶』, 『그리울 때 너를 그리다』, 『오후의 명상』 등이 있다.